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

구분	교수·학습 내용		학습 자료	차시
단원의 길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하기 · 이전 학습 경험 환기 및 학습 계획 세우기 		· 대단원 도입(ppt)	1
(1) 시와 서정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 고은의 「순간의 꽃」 비교하기 · 수필과 비교하며 서정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활동 풀이(ppt)	2
	동짓돌 기나긴 밤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 파악하기 · 시조와 현대시를 비교하며 서정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짓돌 기나긴 밤을」 낭송 플래시 · 갈래 정리_시조(ppt) · 작가 소개_황진이(ppt) · 소단원 정리(ppt) · 활동 풀이(ppt) · 학습 활동 활동지(hwp) · 「저녁에」 낭송 플래시 · 시조창 「동짓돌 기나긴 밤을」(mp3) · 가요 「저녁에」(mp3) · 광고 영상(동영상) · 문제 은행(어휘 퀴즈, 학습지, 소단원 평가)(hwp) 	
(2) 소설과 서사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항목(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인물)을 바탕으로 이야기(사건) 구성하기 · 서사 갈래의 요소 파악하기 	· 활동 풀이(ppt)	3~8
	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간 관계, 사건 전개 과정, 서술상·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 파악하기 · 현대 소설과 설화를 비교하며 서사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유정의 삶과 문학(동영상) · 실례마을에서 들은 「봄·봄」 이야기(동영상) · 「봄·봄」 전체 줄거리(애니메이션) · 「봄·봄」 지문 듣기(mp3) · 갈래 정리_현대 소설(ppt) · 작가 소개_김유정(ppt) · 소단원 정리(ppt) · 활동 풀이(ppt) · 학습 활동 활동지(hwp) · 「지귀」 지문 듣기(mp3) · 문제 은행(어휘 퀴즈, 학습지, 소단원 평가)(hwp) 	
(3) 수필과 교술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영희의 「관촬아」에 나타난 수필의 특성 파악하기 · 교술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활동 풀이(ppt)	9~11
	이옥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과 구성, 형상화 방식, 소재 및 주제 파악하기 ·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을 비교하며 교술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옥설」(애니메이션) · 갈래 정리_고전 수필(ppt) · 작가 소개_이규보(ppt) · 소단원 정리(ppt) · 활동 풀이(ppt) · 학습 활동 활동지(hwp) · 「플루트 연주자」 지문 듣기(mp3) · 문제 은행(어휘 퀴즈, 학습지, 소단원 평가)(hwp) 	
(4) 시나리오와 극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내용을 소설로 볼 때와 영화로 볼 때의 차이점 파악하기 · 여러 극 갈래(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의 차이점 비교하기 	· 활동 풀이(ppt)	12~1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인물들 간의 관계,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 파악하기 · 시나리오와 희곡을 비교하며 극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영화(동영상) · 갈래 정리_시나리오(ppt) · 작가 소개_노회경·민규동(ppt) · 소단원 정리(ppt) · 활동 풀이(ppt) · 학습 활동 활동지(hwp) · 문제 은행(어휘 퀴즈, 학습지, 소단원 평가)(hwp) 	
단원 통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민복의 「눈물은 왜 짙가」를 읽고 갈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작품의 갈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 감상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기 · 함민복의 「눈물은 왜 짙가」를 대본으로 각색하고 공연한 뒤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통합 활동(ppt) · 통합 활동 활동지(hwp) · 「눈물은 왜 짙가」(mp3) 	17~18
단원의 마무리	·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의 마무리(ppt) · 문제 은행(대단원 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수능형 평가)(hwp) 	

1

문학 속으로

- (1) 시와 서정
동짓달 지나긴 밤을
- (2) 소설과 서사
봄·봄
- (3) 수필과 교술
이옥설
- (4) 시나리오와 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소단원	고등 국어 성취 기준	선택 과목 연계 성취 기준
(1) 시와 서정	[국 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2) 소설과 서사	[국 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이 성취 기준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문학 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3) 수필과 교술		[문학 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4) 시나리오와 극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핵심 질문 이끌기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학습한 문학 작품이나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명을 갈래 구분 없이 말하게 한 다음, 학생들이 말한 작품명을 칠판에 적어 두고, 이들을 서로 묶을 수 기준을 말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대체로 작품의 구성과 전달 방법에 따라 서정·서사·교술·극의 4갈래로 구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문학의 갈래에 대해 학습할 것임을 안내하며 길잡이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문학을 갈래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

T-sol + / 교사용 CD 대단원 도입(ppt)



여러 가지 옷을 계절, 용도, 형태, 색깔이나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보기에 좋고, 필요에 맞게 옷을 빨리 찾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갈래를 구분하는 까닭도 이와 같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묶고, 그 특성을 갈래별로 이해하면 개별 작품의 구조와 의미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문학 작품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갈래의 어떤 특성을 알아야 할까?

▶ 문학 작품 감상을 위해 알아야 하는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의문 제기

스스로 하기

돌아보기 이 단원의 학습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문학의 갈래

- 문학의 갈래를 아는 대로 말해 보자.
- 어떤 갈래를 좋아하는지, 그 까닭과 함께 말해 보자.

● 작품 생산과 감상 활동

- 재미있거나 감명 깊었던 작품을 소개해 보자.
- 작품을 쓸 때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해결한 방법을 말해 보자.

이끌기

문학의 갈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용어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고, 갈래의 특성과 연관 지어 어떤 갈래를 좋아하는지와 그 까닭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던 작품을 소개하고, 자신의 문학 창작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문학 작품을 직접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 ❖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 ❖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문학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서정, 서사, 교술, 극의 네 갈래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언어를 수단으로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상화의 방법, 곧 주제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통 서정 갈래는 사상이나 정서를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고, 서사 갈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한다. 교술 갈래는 세계와 삶에 관한 성찰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전달하고, 극 갈래는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의 양상을 직접 보여 준다. 이처럼 갈래마다 형상화의 방법이 다르므로 감상의 초점도 달라진다.

이 단원에서는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의 본질을 이해하고,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각 갈래의 특성을 살피기로 한다. 아울러 하나의 작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지를 실제 작품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능동적인 독자로서 작품을 보는 눈과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대단원 설정 취지

이 단원은 개별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갈래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형상화 방법이 다음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교술, 극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각 갈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작품을 유기적인 구조물로 만들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갈래와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기적 구조물로서의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끌기

질문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핵심 개념 자체에 관한 질문, 핵심 개념을 둘러싼 주변 맥락에 관한 질문, 핵심 개념과 자신의 삶(또는 학습)을 관련짓는 질문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활발한 질문 만들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다보기 이 단원의 학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적어 보자.

문학의 갈래

-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갈래는 언제부터 나누기 시작했을까?
-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갈래를 나눌까?
- 음악이나 미술도 갈래를 나누는데, 그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 갈래에 대해 잘 알면 어떤 도움이 되나?
- 요즘은 문학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갈래로 봐야 하나?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

- 감명 깊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 ‘형상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 비슷한 글이 어떤 것은 문학이 되고 어떤 것은 문학이 못 되는가?
- 왜 어떤 작품은 널리 읽히고 어떤 작품은 그렇지 않을까?
- 작품을 쓰거나 읽는 요령이 있을까?
-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 객관적으로 어떤 작품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이미 많은 시를 읽고, 시에 대해 공부했다. 하지만 왜 시가 가치 있는 문학인지,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를 이해하는 수준에 이른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는 일인데, 특히 정서적 감동이야말로 시 읽기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시를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 해석하는 일보다 작품에 담긴 시인(또는 시적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시적 상상에 함께 빠져들며 시적 표현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면 왜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거기서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시 읽기의 방법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의 학습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 읽기를 메타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도록 이끌고, 특히 낭송을 통해 시의 맛을 느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1. 문학 속으로

(1) 시와 서정

-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안다.
-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서정 문학 활동을 한다.

동짓돌 기나긴 밤을

🔑 학습 열쇠

- ① 서정 문학의 개념
- ② 서정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소설과 서사

-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안다.
-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서사 문학 활동을 한다.

봄·봄

🔑 학습 열쇠

- ① 서사 문학의 개념
- ② 서사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서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수필과 교술

-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안다.
-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교술 문학 활동을 한다.

이옥설

🔑 학습 열쇠

- ① 교술 문학의 개념
- ② 교술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교술 문학의 수용과 생산

(4) 시나리오와 극

-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안다.
-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극 문학 활동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학습 열쇠

- ① 극 문학의 개념
- ② 극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통합 활동

작품을 각색, 공연하며 창의성을 기르고 문학 즐기기

대단원 구성 방향

이 단원은 개별 문학 작품이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갈래의 특성에 따른 작품의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1) '시와 서정'에서는 서정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소단원 (2) '소설과 서사'에서는 서사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소단원 (3) '수필과 교술'에서는 교술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그리고 소단원 (4) '시나리오와 극'에서는 극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학의 갈래적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시와 서정




- ① 서정 문학의 개념
- ② 서정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핵심 질문 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T-sol+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이끌기

수필과 시의 비교를 통해 대표적인 서정 갈래인 시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꽃'이라는 공통의 제재를 두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했는지 말해 보도록 한 뒤 그 차이를 통해 두 작품이 지닌 각각의 갈래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와 비교할 때 **나**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가 이름이 없는 꽃이라면 내 스스로 이름을 지어 줄 수 있겠으나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물에 대해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는 이름 밖에 있는 무엇을 더 사랑한다. 비유하건대 음식에 있어 어찌 그 음식의 이름을 사랑하며, 옷가지에 있어 어찌 그 옷가지의 이름을 사랑하겠는가?

- 신경준, 「이름 없는 꽃」에서

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 고은, 「순간의 꽃」에서

예시 답 (가)는 동산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서술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꽃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가진 이름이나 그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므로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글쓴이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여러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3행, 열다섯 글자라는, 극도로 압축된 형식을 통해 인생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올라가는 것에만 치중하여 못 보고 지나쳤다가, 그나마 내려갈 때 보게 된 '꽃'을 통해 여유가 있어야 진짜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라는 대조적 상황 제시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행 가운뎃줄을 통해 읽는 속도를 정서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였다.

가에 비해 **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이미지가 선명하며,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보여 준다. 또 행 가운뎃줄이 분명하고 표현에 운율이 느껴진다. 이처럼 제재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 서정 문학이다. 서정 문학은 시어를 섬세하게 사용하고 비유, 상징, 이미지, 운율 등을 통해 주제나 정서를 집약하여 표현한다. 이런 특성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며 서정 갈래의 본질을 이해해 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노래한 시조이다. 이 작품은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아름다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린 점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제재로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잘 살린 작품으로 서정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작품에 사용된 언어와 운율, 표현 등의 속성을 파악하여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작가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주관적으로 펼쳐 내는 서정 갈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 작품은 '남'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 낸 시조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상 특징을 생 각하며 감상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동짓달 기나긴 밤을」 낭송 플래시, 갈래 정리_시조(ppt), 소단원 정리(ppt)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T-sol+ / 교사용 CD

작가 소개_황진이(ppt)

동지(冬至) **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한 표현

▶ 임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 :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표현

▶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연장하고 싶은 바람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

▶ 임이 돌아와 함께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림

맥락 읽기 Q&A

1. 시적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헤어진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2. '춘풍 니불'은 언제 사용되는 것인가?
→ 임과 함께 밤을 보낼 때 사용된다.
3.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 임과의 재회

제재 연구

갈래	고시조, 평시조, 단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적
제재	밤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뜻한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잠깐 확인

1.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
2.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형상화하였다. (○, ×)
3.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 ×)

〈참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나타나는 배경의 주관적 변형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임이 부재한 동짓달 밤이 길다는 점과 임이 오신 봄날의 밤이 짧다는 점이 자아와 세계가 대립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현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전면에 놓고, 이와 동시에 미래에 임과 재회할 때 겪게 될 아쉬움을 후면에 놓은 채, 내면적으로 이중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 이중의 갈등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면 다른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임이 부재한 동짓달 밤을 잘라 내서 짧게 줄이고, 잘라 낸 그 시간을 임과 재회한 봄밤에 이어 붙여 길게 늘이는 방법을 상상해 낸 것이다.

- 류수열, 「이별 시조의 배경 중화 현상에 대한 고찰」(고전 문학과 교육 제9집, 2005)

- 버혀 내어 베어 내어.
- 어른 님 정든 사람. 사랑하는 임.

황진이(? ~ ?) 조선 중기의 시인. 당대의 명가(名妓)로 많은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뛰어난 한시와 시조 작품을 남겼다.

이해하기

T-sol +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학습 활동 활동지(hwp)

예시 답 산문은 특별한 리듬감 없이 문장 구조나 내용 단위 중심으로 평탄하게 읽게 되는 데 비해, 시조는 각 행을 네 박자의 호흡에 맞추어 높낮이와 길이를 조절하며 율조리듯이 읽게 된다. 그 이유는 행과 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도 어절들이 의미와 소리의 어울림을 의식하며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행의 같은 위치에 '한 허리를', '서리서리', '구뿔구뿔' 같은 운율적인 표현을 배치한 것도 일반 산문을 읽을 때와 다른 효과를 준다.

표현의 특징 파악하기

1. 이 시조를 낭송하고 그 느낌을 일반 산문을 읽을 때와 비교해 보자.

(1)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러한 차이가 나는 까닭을 말해 보자.

(2) 다음 표현이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 서리서리 너털다가

· 구뿔구뿔 퍼리라.

예시 답 '서리서리'와 '구뿔구뿔'의 반복 표현, '널다'와 '퍼다'의 의미상 대립, '기나긴 밤'을 마음대로 넣고 편다는 상상력 등이 어우러져 의미와 소리 양면에서 리듬감을 자아낸다.

정서와 태도 이해하기

2. 이 시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상상해 보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

'어른 남'이 오시지 않거나,
오더라도 금방 돌아가는 상황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어른 남'이 왔으면, 와서 오래
도록 함께 정을 나눴으면 하
고 바라는 감정, 곧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

그 감정에 어떤 태도로
대처하는가?

'어른 남'이 오시는 상황을 상
상하여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그에 맞춰 해석하고 재배열하
며 기다리고 있음.

시의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3. 이 시조가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하고, 그러한 발상의 특징과 효과를 말해 보자.



· 발상의 특징

예시 답 비물질적 대상인 시간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베어 내고, 갈무리해 뒀다가, 다시 펼쳐 낸다고 표현하였다.

· 발상의 효과

예시 답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냄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 시어, 시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1-(1) 이끌기

이 작품과 다른 산문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어떤 차이가 느껴졌는지 말해 보도록 함으로써 서정 갈래가 지닌 운율적 특징을 이해하고, 운율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어른 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상해 본다.

2 이끌기

시적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그가 시적 대상에게 가졌을 감정이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 보도록 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일이 서정 갈래의 감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실제로 불가능한 행위를 가능하게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비를 생각해 본다.

3 이끌기

서정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작품에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해 보도록 하고, 그것에 담긴 의도와 그것을 통해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4. 이 시조와 다음 현대 시를 비교하며 읽고 서정 갈래를 탐구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저녁에」 낭송 플래시

제재 연구

- 김광섭, 「저녁에」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정적, 사색적
 - 어조: 사색적인 어조, 소망과 기원의 어조
 - 제재: 별
 - 주제: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색과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
 - 특징
 - ①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관조적인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인간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대상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별'과 '나'의 특별한 만남

밤이 깊을수록
고독의 시간 성찰의 시간
 별은 맑음 속에 사라지고
↑ 대조적인 이미지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 '별'과 '나'의 이별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나랴 ▶ '별'과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

4-(1) 이끝기

시조와 현대 시를 비교·감상하며 개별적인 시 작품이 지닌 형상화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하나의 구조물로서 의미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동짓돌 기나긴 밤을」과 「저녁에」의 형식과 표현을 비교해 보자.

	동짓돌 기나긴 밤을	저녁에
연과 행	3장 6구 형식	3행, 또는 4행의 3연 구조
운율	4음보의 정형률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
표현 방법	비물질의 물질화를 통해 정서를 선명하게 표현	대비와 대구, 설의법적 질문을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
어조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영탄적이고 성찰적인 어조

T-sol+ / 교사용 CD 시조창 「동짓돌 지나긴 밤을」(mp3), 가요 「저녁에」(mp3)

(2)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동짓돌 지나긴 밤을」과 「저녁에」를 음악으로 듣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보자.

근대 이전까지, 시는 언제나 노래로 향유되었다. 서양의 음유 시인이나 우리의 가객들이 그 예이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대중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읽는 시’가 정착되었다. 하지만 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음악과 가장 가까운 문학 형식이다.

• 작품을 글로 읽을 때와 노래로 들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예시 답 글로 읽을 때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노래로 들을 때에는 우선 멜로디와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작품 전체의 주제나 의미보다는 부분적인 구절의 의미에 집중하게 된다.

• 시조창과 현대 가요를 들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예시 답 시조창은 템포가 느리고 시구나 시어보다는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현대 가요는 시조창보다 템포가 빠르고 가사를 한 구절씩 끊어서 이해할 수 있다.

4-(2) 이끝기

서정 갈래가 운율적 특징을 지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두 작품뿐만 아니라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다양하게 들어 보고, 노래와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시조창(時調唱)

조선 시대에 확립된, 3장 형식의 정형시에 일정한 가락을 붙여 부르는 노래.

4-(3) 이끝기

시조의 형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갈래를 바꾸어 써 보는 활동이다. 학생이 직접 시조를 창작해 보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서정시와는 다른 시조의 고유한 기본 형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저녁에」를 시조 형식으로 바꾸어 쓰고, 바꿀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두었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
 별 하나 나를 보고 나 또한 그 별 보는데
 밝음과 어둠 속에 별도 나도 간데 없네.
 이렇게 정다운 우리 어디 가서 또 만나리.

→ 핵심 시어를 살리면서 시조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다.

✿ 발상이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바꾸어 쓸 수도 있고 형식이나 표현에 중점을 두어 고쳐 쓸 수도 있다.



🍷 매체의 다양성과 그 효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

갈래와 관련된 경험 심화하기

5. 현대 사회에서 시가 소통되는 다양한 양상을 찾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시의 효용을 이야기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광고 영상(동영상)



전철역 안전문

광고 영상

건물의 글판

5-(1) 이괄기

우리 생활에서 시가 얼마만큼 넓게 소통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그림에 소개된 것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적 표현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의 효용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1) 공공시설이나 대중 매체에서 시를 활용하는 까닭을 추측해 보자.

예시 답 시는 짧아서 게재하기 쉽고 독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게재하는 쪽의 목표(예컨대 독자의 힐링,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를 잘 구현할 수 있다.

5-(2) 이괄기



서정 갈래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시를 활용한 경험을 나누고, 그때 시를 활용해서 거둔 효과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친구에게 선물할 때 유명한 시를 인용한 적이 있다. 좋은 시를 잘 쓰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긴 글보다 효과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서정 갈래를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6.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가며 서정 갈래를 잘 이해했는지 짝과 서로 점검해 보자.

🍷 시의 개념과 역할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6 이괄기

서정 갈래의 특징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앞서 학습했던 서정 갈래의 특징과 작품에 대한 감상을 환기하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시는 정서를 압축해 표현하는 문학 (이)다.

- 정서를 압축해 표현하는 문학
- 짧은 형식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문학
- 비유와 운율을 기본으로 하는 문학

시는 독자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 독자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 어떤 사람에게는 밥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될
- 대중가요 가사의 원천이 될



(2)

핵심 질문 이끌기

특정 시공간 안에서 행동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관계를 맺어 가며 문제(갈등)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이야기'이다. 다양한 서사 갈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야기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변주되어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이나 민담 형태론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설과 서사



- ① 서사 문학의 개념
- ② 서사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서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핵심 질문 이야기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T-sol +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다음 항목에서 마음대로 하나씩 골라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시간적 배경

- 어느 비 오는 날
- 옛날 옛적
- 서기 2500년

공간적 배경

- 바닷가
- 달
- 어떤 부잣집

인물

- 천재 과학자
- 사랑에 빠진 소녀
- 왕과 왕비

이끌기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통해 서사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구성해 보며 서사 갈래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 그리고 사건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 어느 비 오는 날, 바닷가의 외딴집에서 천재 과학자가 실험에 몰두하는 사이 그의 세 살짜리 딸이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뎠다. 뒤늦게 딸이 사라진 것을 안 과학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딸은 비가 그친 뒤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① 과학자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② 과학자는 죽은 딸을 대신할 수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③ 과학자는 딸이 죽어 가는 동안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누구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을 겪었다.”라는 뼈대에서 출발한다. 거기에서 그럴듯한 살을 붙여 재미와 감동을 주는 문학이 서사 문학이다. 좋은 작품은 대체로 매력 있는 인물, 긴장감이 넘치는 사건 전개, 개성 있는 문체와 표현 기법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소설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서사 갈래의 본질을 이해해 보자.

「봄·봄」은 머슴으로 일하는 데릴사위와 장인 간의 희극적인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농촌 소설이다. 이 작품은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어수룩한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해학적인 문체를 잘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서사 갈래의 주요 특징인 인물 간의 갈등과 이야기의 구성 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를 학습하는 단원의 제재로 적절하다. 학생들이 이 작품을 학습하면서 서사 갈래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작가의 관점과 문체의 개성까지 아울러 학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개성 있는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그린 소설이다.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 밑바닥에 자리 잡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 관습 등을 고려하며 감상해 보자.

예시 답 일을 해 주면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일했지만 아직 성례를 하지 못했다. 장인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성례를 미루고 있다.

↓ 첫 부분을 읽고 소설 속 '나'의 현재 상황을 추측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 성례(成禮) 혼인의 예식을 지낸.
- 안해 아내.
- 짜증 '짜장'의 방언, 과연 정말로.
- 안죽 '아직'의 방언.
- 병병하고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고.

↓ 소설에 사용된 낱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예시 답 우선은 정보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에 더해 서술자의 걸말과 속마음을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서술자의 심리에 더 깊이 동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나아가, 걸말과 다른 속마음(혼잣말)을 통해 해학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T-sol+ / 교사용 CD 김유정의 삶과 문학(동영상), 실레마을에서 들은 「봄·봄」 이야기(동영상), 「봄·봄」 전체 줄거리(애니메이션), 「봄·봄」 지문 듣기(mp3), 갈래 정리_현대 소설(ppt), 소단원 정리(ppt)

봄·봄

김유정 5

T-sol+ / 교사용 CD
작가 소개_김유정(ppt)

성례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 간의 갈등
발단 “장인님! 인젠 저…….”
대화 형식으로 시작, 독자의 흥미 유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원인
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상투적 답변, 성례를 시키지 않는 이유
하고 만다.

10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
3년 7개월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함
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단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장인의 인색한 성격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문제 제기를 못 함
▶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

15

- 백락 읽기 Q&A**
1. 이 소설의 서술자는 누구인가?
→ '나'
 2. 점순이네 집에서 '나'의 신분은?
→ 명목상 데릴사위이지만,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머슴이다.
 3. '나'가 장인과 맺은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준다.
 4. '나'가 장인과 맺은 계약의 허점은?
→ '나'가 치러야 할 의무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제재 연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토속적, 해학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시간적 - 1930년대, 공간적 - 강원도 농촌
제재	성례(혼인) 문제
주제	어수룩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 갈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시간과 서술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구성을 보임. • 토속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줌. •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함.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
 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썼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
 5 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랴 싶
 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
 채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
 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펴
 10 찰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 잘못된 계약에 대한 '나'의 인식과 불만

잠깐 확인

1. 대화 형식으로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
2. 우직하고 순박한 '나'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강한 해학성을 띤다. (○, ×)
3.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다. (○, ⊗)

- 불배기 '불박이'의 방언.
- 승검기도 승검기도.
- 숙맥(葦麥)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비유한 말.



잠깐 확인

1.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
2.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
3. 장인에 대해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장인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

이 부분에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와 그러한 묘사가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자를 가지고 키를 재 보려 한다든지, 키가 안 클까 봐 물을 대신 길어 준다든지, 서낭당에 치성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효과가 없을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함으로써 해학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점순이의 키가 작품의 주요 갈등 요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진짜 갈등, 곧 돈을 안 주고 사람을 부려 먹는' 갈등과 대비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가볍게 이끌어 가고 있다.

'나'와 장인 간 갈등의 심화

- **내외를 해야** 남의 남녀 사이에서 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해야.
- **움물길** '우물길'의 방언.
- **제-미** 제에미, '제기'의 방언.
- **소낭당** 서낭당.
- **막무관해** 막무가내.
- **거불지는** 둥글고 두두룩하게 툭 비어져 나오는.
- **너머** 너무.
- **몰 붓다** 모를 붓다. 못자리를 만들어 씨를 뿌리다.
- **키**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쭈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 **문태며** 문대며.
- **참** (어미 '-은, '-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 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움물길**에서 어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
 비속어.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함
 하고 **논둑에다 침을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 동물에 비교하여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
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라드나 부다** 하고, 내가 **넌쫄넌즈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줘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관해니……**.

전개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밍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볼 리기 위하여 **심어온** 조금도 **싫지 않다**.

“아이구, 배야!”
 일할 의욕이 없어 피병을 부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꺾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얕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썩썩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드니**
 비언어적 표현. 불안과 분노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이런 행동이 자주 있었음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둑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 내 **떡살을** **웅겨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이야,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나?” 이 **대가릴** **까놀** 자식.”
 급하고 거친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행동
 비속어 사용. 해학적 표현
 ▶ 장인에 대한 반발심으로 피병을 부리는 '나'

예시 답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면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장인을 협박하고 장인은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설득한다. 이와 같은 '들이엄-밀림'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정도가 심해지다가 행복할 결말을 예감하면서 끝냄으로써 '갈등의 고조 → 해소'라는 전형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
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불만을 드러냄 『』: 장인에 대한 마을의 평판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욕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뒤에서 언어유희
 5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 참봉 덕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답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
소작권을 박탈함. 마름의 횡포
 10 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 장인의 마름으로서의 행태

『그러나 내젠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 이유: 노동력이 필요해서
형편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
검연쩍어서
 15 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
역순행적 구성
 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장인의 거친 성격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공, 공.'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결국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같이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올해 가을
 20 “그래 귀가 번쩍 떠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어수룩한 '나'를 회유함
하루 만에 논일을 끝냄
 25 “이 자식이, 미처 커야지. 조절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
나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려는 장인의 교활한 성격
 하고 남 낫작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댕돌에 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뺨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 작년 이맘때의 비슷한 경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 '이놈의 장인님'에 담긴 '나'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후 호칭이나 지칭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알아보자.

예시 답 '이놈의 장인님'은 악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허투루 대하는 장인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나'는 중립적인 '장인님', 끝났을 때 쓰는 '이놈의 장인님', 자신의 입장이 어려울 때 쓰는 '빙장님'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고 있다.

▽ '나'와 장인님의 줄다리기 양상이 변해 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 오작해야 오죽해야.
- 번 분. 본래.
- 마름 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
- 호박개 뼈대가 굵고 털이 복실복실한 개.
- 작인(作人) '소작인'의 준말.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애벌논 여러 번의 김매기 중 첫 김매기를 한 논.
- 안달재신 몹시 속을 태우며 여기 저기로 다니는 사람.
- 돌려안는다 '가로챌다'는 뜻.
- 덤덤이 덤덤히.
- 갈 갈나무의 갈(참나무의 총칭).
- 건승 힘들거나 속뜻이 없어 걸로만 대강대강 함.
- 떠여서 뜨여서.
- 경오 경우.
- 가르치며 가리키며.
- 골김 비위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언짢아서 성이 나는 김.



예시 답 '사위'라는 명목으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뿌듯해하면서 동시에 일 잘하는 '사위'가 그만두어 당장 농사가 곤란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셋째 딸의 데릴사위가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붙잡아 뒀어 하는 조바심도 있다.

↓ '나'를 대하는 '장인남'의 심리를 짐작해 보자.

- **다가스며** 다가서며.
- **사경(私耕)** 주인이 머슴에게 주는 한 해 농사일의 대가(곡물, 현금으로 계산) = 새경.
- **얼썬** 조금 큰 것이 눈앞에 빠르게 잠깐 보이는 모양. 여기서는 '얼른'의 뜻으로 쓰임.
- **단판 가자고** 판단을 받으러 가자고.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남 앞으로 **다가스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 내슈, 뭐.**”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장인에 대한 반항
명목상 '나'의 위치 실제 '나'의 위치 “사위라는 명목으로 사경을 주지 않으려고 함”

“그러면 **얼썬**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호한 태도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꼈었다. 마을 일을 돌보는 사람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어른의 권위를 내세워 가지 않으려 함

안 간다구 뻘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장인에 대한 불만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 장인을 데리고 구장을 찾아가서 답판을 지으려 하는 ‘나’

5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의 어수룩하고 착한 성격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역순행적 구성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

봄기운 ①

봄기운 ②

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

‘.’ : 생동하는 봄기운

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봄기운 ③

10 몸살(을 아주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봄을 맞아 춘정을 느끼는 상황, ‘봄’이라는 계절이 이성애에 대한 애정을 자극함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르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

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15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장인에 대한 불만을 소에게 풀고 있음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소

울화가 났든 것이다.

▶ 울화로 소를 두들기는 ‘나’

이유: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맥락 읽기 Q&A

1.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 봄

2. ‘나가 여느 때와 달리 소를 두들긴 이유는?’

→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3. ‘나가 울화가 난 진짜 이유는?’

→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예시 답 이 ‘몸살’은 몸의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몸살이다. 자신은 성례도 못 하고 있는데 봄이 돼서 만물이 생동하는 상황이 몸살로 나타난 것이다.

↓ ‘나’의 몸살의 원인을 이 소설의 제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 가생이 ‘가장자리’의 방언.

● 아주 ‘아직’의 방언.

● 날라구 내려고

● 대구 대고, 계속하여 자꾸 무리하게.

● 들입다 세차게 마구. 또는 무리하게 힘을 들여서.

● 대리 ‘다리의 방언.’

↓ 점순이를 묘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심리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씩 이쁜 계집애는 못'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떡'도 아니고, 그저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생긴 얼굴이라거나, 참외 중에 쥘 맛 좋고 예쁜 '감참외' 같다고 하는 데서 점순이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한테는 점순이의 서글서글한 눈, 밥술이나 먹음직한 입, 기름 흡투성이 밥을 먹이는 것까지 모두 귀엽다.

- 툭툭하게 생김새가 멋이 없고 투박하게.
- 울에 울해에.
- 현철이들 환찰이들.
- 감참외 참외의 하나. 속이 잘 익은 감각이 붉고 맛이 좋음.
- 흑흑히 툭툭히.
- 파(破) 사람의 결점.
- 채시니없이 들까분다고 채시니없이 들까분다고. 몸가짐이나 행동을 몹시 경망스럽게 한다고.
- 깨뺨을 쳐서 되게 메어쳐서. 세계 집어 던져서.
- 밥함지 밥을 담은 데 쓰는 함지. 함지는 나무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그릇을 말함.
- 어떻게 어떡해.
- 되알지게 힘주는 맛이나 억지 손이 몹시 세계.
- 심판 썬판.
- 맷을 맥을.
- 올르고 오르고.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울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철이들 크건만 이걸 우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쥘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흑흑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현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 구어체적인 표현. 당시의 궁핍한 상황과 '나의 소박한 마음이 나타남' 이 (장인님은 이걸 채시니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머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다 깨뺨을 쳐서 흡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 점순이의 외양과 성격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째루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남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거리를 둬 밥을 다 먹기를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래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할 점순이의 1차 충동질』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성례를 원하는 점순이의 심리 → 당돌함이 드러남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맷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올르고 씩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부다하고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죽** 어리다구 하니까…….

▶ '나'를 충돌질하는 점순이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 주**
장인의 생각
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드니 사람은 **점잔해야 한다구** **웃심**(얼른 보면 **집**
어제의 사건으로 돌아감
용 우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족이 빠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
「 :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과시적인 구장의 성격. 외양 묘사를 통한 해학적 표현

5 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눈치가 빠름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드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훅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성례시켜 줌
먼저 **뎀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
해학적 모습

10 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의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성격
장인님 하면 괜스리 골을 널라구 든다. 뱀두 뱀이래야 좋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15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
꾸 잇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
「나」의 호칭에 대한 장인의 못마땅한 심리. 「나」가 장인님을 빙장님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이유
에야 겨우 알았지만……. ▶ 구장을 찾아간 「나」와 장인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드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인물의 희화화
튀기며

20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렐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장인의 이름

하고 내 **집작대루**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비언어적 표현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소작인인 구장이 마름인 장인의 위치에 놀려서 보이는 반응
▶ 장인의 기세에 놀려 줌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구장

25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
목적을 위해 심리적 위협을 가함
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장모의 체구를 예로 들어 반박함. 해학적 표현
도 **꿇배기 하나가 작다.**)”

▶ '구장님'의 행동을 통해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렇게 짐작한 이유를 말해 보자.

예시 답 「나」가 얘기할 때는 얼른 성례를 시키라 하고 장인님이 얘기할 때는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 대책을 내지 못하는 데서 줯대 없이 그저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장인님의 귓속말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임도 알 수 있다.

▶ '나'가 밖에서는 '빙장님' 해야 좋아하는 까닭을 통해 '장인'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

예시 답 마름으로 동네에서 행세하면서 “돈 있으면 양반”이라 하고 ‘빙장’이라 해야 좋아하는 것을 통해 남들에게 내세우기 좋아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잠깐 확인

1. 장인의 외모와 행동을 의도적으로 우습게 묘사하는 것에서 인물의 희화화가 나타난다. (○, ⊗)
2.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사를 통해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
3.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안죽 '아직'의 방언
- 점잔해야 점잔아야.
- 웃심 입술 위쪽에 난 수염.
- 집웅 지붕.
- 훅딱 후딱.
- 빙장(聘丈)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
- 빙모(聘母)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
- 말조짐 말조심.
- 멀쭉룩해서 머쓱해져서.

맥락 읽기 Q&A

1.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 문태

2. 구장이 장인의 편을 든 이유는?

→ 장인에게 잘 보여야 소작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답 '나'만 잘 설득해 주면 내년에도 소작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 '장인'이 '구장님'에게 귀속말한 내용을 짐작해 보자.

- 골릴라구 골리려고.
- 참아 차마.
- 쟁그러웠다 쟁글쟁글했다(미운 사람이 잘못되거나 하여 몹시 고소했다.)
- 귀정(歸正)을 얻지 사물을 옳은 길로 돌려세워 끝을 짓지.
- 피였다구지만 피였다고 하지만.
- 정장(呈狀) 소정(呈狀)을 관청에 낸.
- 들쓰고 책임이나 허물 따위를 억지로 넘겨 말고.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꺾꺾 웃드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릴라구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굽으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계로 씨러질 듯하다 몸을 바루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 중재를 위해 찾아가던 구장 앞에서 신경전을 벌임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눈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귀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뉘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문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피였다구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구장이 장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어수룩한 성격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잦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져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구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넌 정장을(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쫄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
^{법률적 지식을 들어 설득함}
 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일 걸 염려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인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
^{장인의 말을 인용해 '나'를 회유함}
 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 구장의 설득으로 다시 일을 하는 '나'}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5 ^{현재로 돌아옴}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의도한 일이 아니라 돌발적인 일이었음}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구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 게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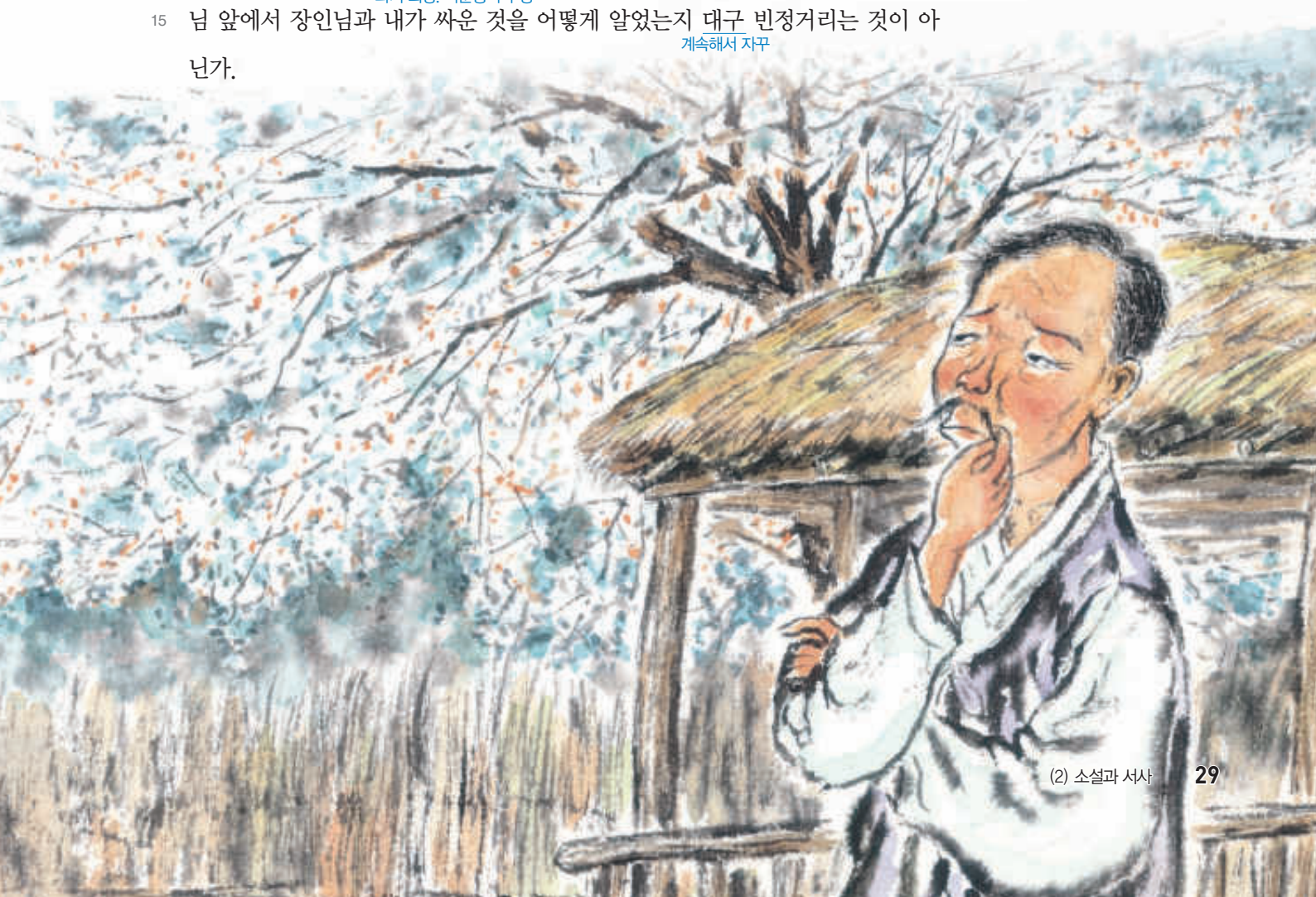
10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장인의 허세, 양반의 걸음을 흉내 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마름의 신분으로} 머처럼 닦어 놓았든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
 린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 오늘 싸움의 우연성 강조}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과거 회상. 역순행적 구성} 마술 간 것이 썩 나뻤다. 낮에 구장
 15 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었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
^{계속해서 자꾸}
 닐가.

〈참고〉 구장의 역할

- 희극적 행동으로 해학성을 유발한다.
- 장인 대신 '나'를 설득하여 갈등을 지속시킨다.
- 장인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

- 늦일 걸 염려지만 늦을 걸 염려하지만.
- 이층 '아침'의 방언.
- 머처럼 모처럼.
- 논지(論之)면 말하자면.
- 마술 간 '마술'은 '마름'의 방언. 이 웃에 놀러 간.



맥락 읽기 Q&A

1. 몽태의 판단과 다른 '나'의 생각은?

→ '나'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점순이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몽태의 장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 장인이 뇌물로 요구한 감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어 부치던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3. 장인이 '나'를 놓아 주지 않는 이유 두 가지는?

→ 일을 잘하고 어수룩하기 때문에

4.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데릴사위를 이용하는 장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표현은?

→ 사위 부자

이 부분에서 사건의 개요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른 부분의 방법과 비교해 보자.

예시 답 작품의 다른 부분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장면적 제시)한 데 비해 이 부분은 장인님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요약해서 해설하듯이 서술(요약적 제시)하였다.

- **어떻거니** 어떻게하니.
- **임마** 인마.
- **찌다우** 남에게 등을 대고 의지하거나 때를 쓰는 짓. 허물을 남에게 전가하는 짓.
- **지꺼리는** 지껄이는.
- **혹닥이었다** 공연한 말로 꼴사납게 지껄였다. 또는 세차게 다그치며 들볶았다.
- **고르누라고 연팡** 고르누라고 연방.
- **뿔이 상해서** '뿔'은 '배알'의 준말. '배알'은 '창자'의 비속어. 속마음이 상해서.
- **건으로** 건성으로.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뒤?”

“그럼 어떻게거니?”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루 박아 놓지 뿔 어떻게?”

몽태가 평소 장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 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췌다. 놈이 본시 팔팔 인물 성격의 직접적 제시 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석웃값을 몰라구 막 찌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병 병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꺼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 주구 있을 테냐?”

몽태가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부추김

“영득이는 일 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년 사 년이나 살구두 더 살아야 해?”

당시 농촌에서는 데릴사위가 드물지 않았음

“네가 세 번째 사위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점순이의 데릴사위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세 번째 대상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 '나'를 부추기는 몽태 10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구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루 혹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즐거리는 이렇다…….

정보의 요약적 제시

우리 장인님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 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낫지마는 열네 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데릴사위 제도를 악용하는 장인에 대한 비판. 반어법

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누라고 연

장인의 인색한 성격

데릴사위가 계속 바뀐 두 가지 이유

팡 바뀌 들였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즐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 먹으니까 뿔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두 참 잘하

장인이 '나'를 놓아 주지 않는 이유

구,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

장인의 계산대로라면 성례를 위해 아직도 4년을 더 기다려야 함

이 인제 여섯 살, 적어두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

▶ 장인의 데릴사위 교체 전략과 '나'의 처지 25

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채리고 장가를 들여 달라구 때를 쓰고 나자

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으로 ‘영, 영.’ 하며 꺾등으로 들였다.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

제대로 듣지 않음

몽태가 장인에 대해 반감을 지닌 이유

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린다. 그것두 장인님이 저 달

장인이 뇌물로 요구한 것

라구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거나, 옆구리에

뽕뽕 줌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드면 그럴 리도 없었드걸…….



“가두 좋아유. 아이구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일후 아들을 낳어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성례를 이루겠다는 각오}오늘은 열 쪽에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5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몹시 화가 남}눈에 독이 올라서 ^{급히}저편으로 hing하게 가더니 지계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통겨지면서 ^{뺨창이}뺨창이 곳곳한 것이 여간 쾅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계막대기로 우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10 원체 ^{심사가 불편해서}심청이 굶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었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볼기짜를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곁에 별떡 일어나서 ^{점순이가 말한 대로 수염을 잡아챈}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인에게 반격함}아까부터 ^{점순이가 제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오해함}뱍 뒤 올라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툭툭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15 맞는 걸 보면 ^{점순이가 제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오해함}짜정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점순이가 제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오해함}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점순이를 의식해 호기를 부림}까셀라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 **폐병을 부리다**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 ‘나’

20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계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장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됨}나려갈졌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장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됨}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펍 나서 그 아래 발 있는 ^{장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됨}녕 알로 그대로 떼밀어 굴러 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덧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25 “^{싸움의 근본 원인}부려만 먹구 왜 ^{마음이 무른 ‘나’의 성품이 나타남}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마음이 무른 ‘나’의 성품이 나타남}허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뉘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마음이 무른 ‘나’의 성품이 나타남}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드니 내 ^{마음이 무른 ‘나’의 성품이 나타남}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

- **일후(日後)** 뒷날.
- **뺨창** 배알, 창자를 이르는 비속한 말.
- **심(心)청** 마음보.
- **뱍** 부엌.
- **짜정** 짜장, 과연 정말로.
- **까셀라부다** 여기서의 ‘까실름까 보다’의 뜻. ‘까실르다’는 ‘그슬리다’의 방언.
- **나려갈졌다** 내리갈졌다.
- **녕 알로** 녀 아래로. ‘녕’은 둔덕을 뜻하는 말로, 논밭들이 두두룩하게 언덕진 곳을 말할.
- **바지가랭이** 바짓가랑이.

예시 답 이 부분은 ‘나’와 장인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다가 점순이가 기름을 부어서 마침내 클라이맥스에 올라선 부분이다. 절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급박하게 묘사하고, 마지막에 암시적으로 급하게 끝내면서 해결까지 검하고 있다. 다만, 서술 시간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지만 실제 사건시에서는 클라이맥스와 해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여기서부터 사건이 급작스럽게 전환된다. 소설의 구성상 이 부분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자.

맥락 읽기 Q&A

1.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 주는 소재는?
→ 히연
2. '나'가 장인에게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이유는?
→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고 놓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3. 고통으로 다급해진 장인은 사위인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 할아버지
4. '나'와 장인이 몸싸움을 벌이자 점순이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 막상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 편을 든다.

싸움이 끝나고 '나'와 장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짐

잠깐 확인

1. 언어, 인물, 성격, 내용 등에서 도시적인 것과 토속적인 것이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
2.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희극적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살리고 있다. (○, ×)
3.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나'를 풍자함으로써 투철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4. 긴장과 해학성을 높이고 여운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결말을 제시하지 않았다. (○, ⊗)

'나'는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 때문에 얼이 빠짐

- 담박 단박.
- 기어히 기어히.
- 사지(四肢) 사람의 팔과 다리.
- 움키고 움키고.
- 히연 히연. 일제 강점기 때의 다투는 배 이름.
- 뚜덕여 두드려.
- 맹서 맹서.
- 불라살야 부라사라.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 헛손질 헛손질.
- 술개미 '술개'의 방언.

서 담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급소를 잡혀 심한 고통을 느낌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반어적 표현

“아! 아! 할아버지! 살려 줘쇼, 할아버지!”
호칭의 변화. 해학성이 강하게 나타남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걸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쪽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농질 않드니 내가 기어히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쩨쩨했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영금영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움키고 잡아
분노를 느낌 '나의 보복'
▶ '나'와 장인이 해학적 활극을 벌임

결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의 급소를 잡아챈 것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 봉을 넣어 주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불에 그을린 솜 시대적 배경을 알려 주는 소재
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장인이 '나'를 부려 먹기 위해 회유함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나의 머리속함의 절정'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 하며 불라살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일하러 나감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 장인과 화해하고 다시 농사일을 하러 간 '나'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쉰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농긴 왜, 이왕 이런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맹졌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좁 겁도 났다.
'나의 모질지 못한 심성'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
장인이 사위인 '나'에게 할아버지라 부름. 해학성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장인이 도움을 청함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혈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
 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
 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려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서술의 시점
 제가 부추겨 놓고

5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
 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
 당황하여 장인에 대한 동작을 멈춤
 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조겼다.
 10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할라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
 점순이의 태도에 망연자실함
 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에 얼이 빠져 장인에게 호되게 매를 맞은 ‘나’

〈참고〉 김유정의 작품 세계
 2년 정도에 불과한 문단 생활 중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3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다. 작중 인물들
 을 대개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로
 설정했고,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토착적 해학을 형상화시켰다. 또
 한 농민 문학으로서 계몽적 이상
 주의나 감상적인 현실 중시로 흐
 르지 않고, 당시의 농촌 생활과 습
 속을 깊숙이 파고들어 그 내면적
 인 감정의 흐름과 본질적인 인간
 상을 잘 보여 주었다.

- **악장** 악을 쓰는 것.
- **역성**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
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
- **고수해서** 고소해서.
- **나려조겼다** 내려조겼다. 냐다 두
들기거나 때렸다.



김유정(1908~1937) 소설가. 일제
 강점기의 토속적인 인간상을 따듯
 한 시선과 해학적 문체로 그려 내
 었다. 「봄·봄」, 「동백꽃」, 「만무방」
 등의 작품이 있다.

구성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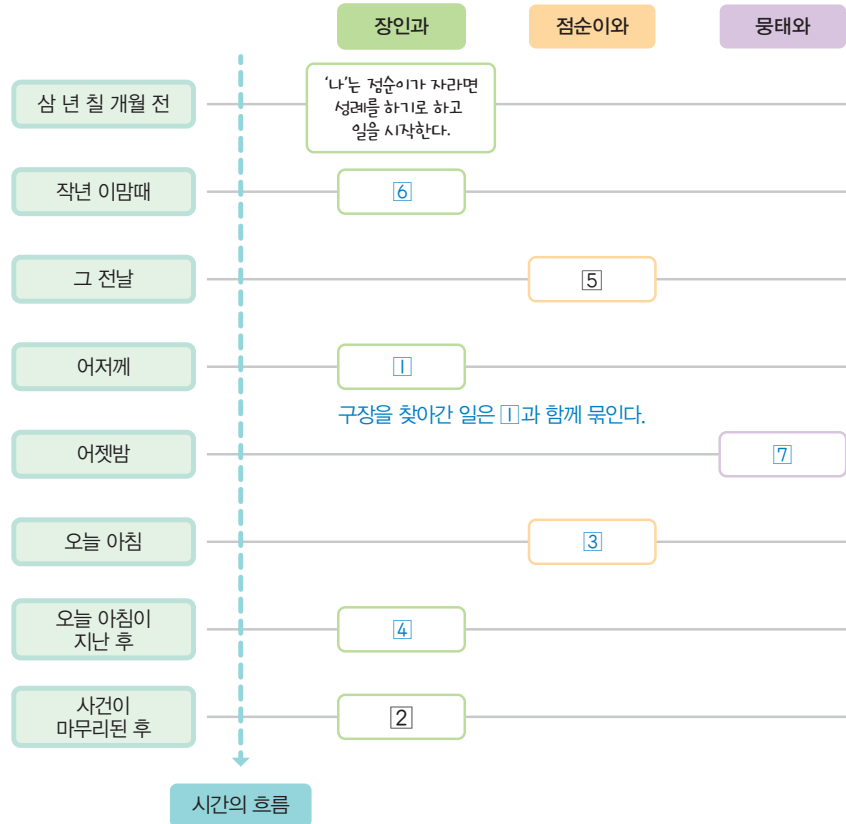
1. 이 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구성상 특징을 파악해 보자.

(1) 이 소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기**에서 골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 본문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낱말이나 표현을 찾아본다.

1-(1) 이끝기

서사 갈래의 핵심 요소인 구성(플롯)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소설의 구성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 주고, 이를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봄으로써 사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2) 이끝기

「봄·봄」속 사건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과 사건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재배열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 보도록 함으로써 역순행적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작품에 제시된 방식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재배열해 보면서 역순행적 구성이 주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리과 플롯의 차이

- 스토리(story):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단순 서술한 이야기.
 - 예)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 플롯(plot):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한 이야기.
 - 예) 왕이 죽자 왕비가 죽었다.

보기

- 1 '나'가 배 아프다고 한 뒤 장인과 싸운다.
- 2 장인이 터진 '나'의 머리를 치료해 주며 달래자 다시 일터로 간다.
- 3 아침상을 내온 점순이가 '나'를 부추긴다.
- 4 '나'와 장인이 서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싸운다.
- 5 점순이가 혼자 발을 갈고 있는 '나'를 부추긴다.
- 6 장인이 돌맹이를 던져 '나'의 발목을 빼게 한다.
- 7 몽태네 집으로 가서 장인의 험담을 듣는다.


(2)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소설 속에서 서술한 순서를 다르게 하여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사건시(事件時)대로 서술할 경우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독자가 사건을 재구성하며 읽는 재미는 반감된다. 사건시와 서술시(敘述時)를 다르게 하면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고,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물 이해하기

2. 이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 관계를 알아보자.

(1) 이 소설의 주인공 '나'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보자.

성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거주지	시골 마을	
직업	농업(마름집 데릴사위)	
특징과 성격	점순이를 좋아하며 일을 잘하고, 다소 어수룩하지만 순박하다.	
주변 인물		
관계	이름	특징과 성격
예비 장인	봉필	배 참봉 덕 마름. 욕을 잘하고 욕심이 많다. 의외로 순박한 구석도 있다.
예비 신부	점순	봉필의 둘째 딸. 열여섯 살. 전형적인 시골 처녀이지만 때로 당돌한 모습도 보인다.
동네 구장	—	좋은 게 좋은 성격. 봉필에게 땅을 얻어 부치고 있다.
이웃 친구	몽태	동네에 오래 살았으며 다혈질적이다. 봉필로 인해 얻어 부치던 땅이 떨어졌다.

2-(1) 이괄기

서사 구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봄·봄」의 주요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인물들 간의 관계나 사건의 개연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알려주도록 한다.

(2) 이 소설에 드러난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해 보자.



갈등의 원인	'나'가 삼 년 넘게 데릴사위 노릇을 하면서 아직도 성례를 못 했음.	성례를 시켜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갈등을 보여 주는 행동	성례를 시켜 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 점순이에게 구박당함.	시시때때로 말싸움을 하고 때로는 드잡이 까지 함.
갈등의 해결 방안	성례를 하면 됨.	성례를 하면 됨.

소설과 갈등

소설은 기본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해소되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갈등에는 인물 내면의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혹은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등이 있다.

2-(2) 이괄기

서사 구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봄·봄」의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과 작품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3) 이끌기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관계, 사건의 전개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참고〉 「봄·봄」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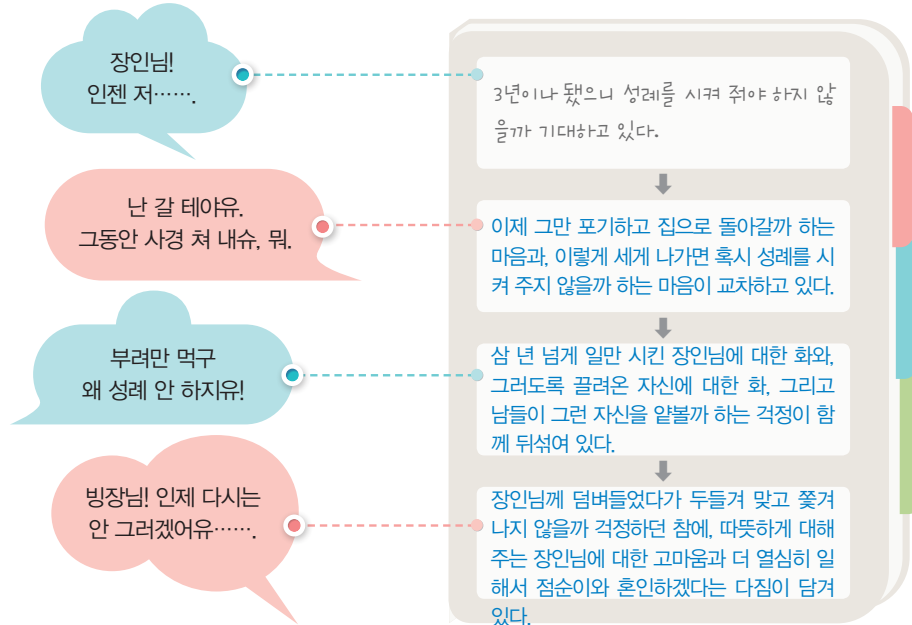
마름의 횡포가 자행되던 당시 농촌 사회의 모습과 그 모순에 희생되는 농민의 고통을 반영한 점에서 이 작품은 현실과 민중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마름이 젊은 농부를 데릴사위라고 하는 정략적 약혼의 희생물로 삼아 그 노동력을 수년간 무보수로 착취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은 세계 인식의 방법에 있어서 냉철하고 이지적인 현실 감각이나 비극적인 진지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희화화된 인물로 설정되어 익살과 해학을 보여 주는 데 그침으로써 투철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 김유정 소설의 인물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비극적인 주인공을 통해 송고미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김유정은 어리석고 익살스러운 인물을 통해 해학미를 추구함으로써 독특한 소설 세계를 형성한다. 등장인물들의 우직함과 영동함, 결말에서의 의외의 행동, 해학의 정신에 투철한 서술자의 시선과 아이러니컬한 역할, 직설적인 육담과 구어적인 속어 감각 등으로 조형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 김원일, 『한국소설 100년 소설 100인 100선』

(3) 다음 대화를 통해 장인을 대하는 ‘나’의 심리 변화를 추측해 보자.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3. 가를 참고하여 나 의 표현상 특징을 탐구해 보자.

가 이 작품에서 김유정은 강원도 산골 농민의 생활에 어울리는 토속적인 언어는 물론이고, 비어, 속어를 즐겨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저속한 느낌을 주거나 감정을 격하게 만들기는커녕,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학을 통해 등장인물의 소박함과 진실성을 선명히 느끼게 해 준다. 또한 1인칭 시점에서 구어(口語)를 주로 사용하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도 다른 소설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이다.

나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드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릴랴구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굽으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루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 하고 싶은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3-(1) 이괄기

(가)에 제시된 「봄·봄」의 표현상 특징을 (나)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확인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에서 설명한 문체의 특징을 **나**에서 찾아보자.

예시 답 전체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며, 인물의 행동을 쉬운 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점은 아래와 같지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일 대 일로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

• 토속적인 언어: 갈비계, 궁둥이 / • 비어, 속어: 이런 생년의 자식 / •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학: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치는 것이다. 나두~콧 떼밀었다. / • 1인칭 시점에서 구어(口語)를 사용: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더럽다, 눈총을 몹시 쏘았다 / • 의성어와 의태어: 깔깔, 우쭐근하고

(2) **나**를 다음과 같은 문체로 이어 써 보고, 원작과 느낌을 비교해 보자.

● 장인은 이 말을 듣고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며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쳤다. 그도 좋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려 어깨로 장인을 떠밀었다. **예시 답** 장인은 사리문개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세우고는 그를 사납게 쓰아보았다. 뭐라고 한 마디 하고는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 하고 서 있었다.

→ 원작의 생동감은 사라지고 인물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건조하게 느껴진다. 원작이 인물의 심리와 성격, 그들의 관계를 더 잘 보여 주고 있다.

🔥 누구의 시점에서 서술했는지,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해서 본다.

3-(2) 이괄기

3-(1)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나)에 제시된 「봄·봄」의 토속적인 언어와 해학적인 문체, 일인칭 시점 등을 일반적인 소설의 표준어 문체, 삼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쓰고 그들의 느낌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3) 이괄기

이 작품의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서술 방식이나 인물 형상화 방식,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 등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을 학생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소설의 개성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소설의 개성을 보여 주는 표현들을 더 찾아보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훈장말하듯이 그동안의 사정과 자신의 심사를 은근슬쩍 다 거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인님의 대사를 상상해서 넣기도 하고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처럼 해학적인 표현도 드러나는 등, 툭툭거리는 시골 청년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묘사돼 있다. 이처럼 1인칭 시점에서 일상적인 구어체를 사용하여 심리나 사건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그를 통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4. 이 소설의 해학적 문체가 당시 농촌 사회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

4 이괄기

이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비평해 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이 단지 작품의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외적 구조와의 종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비평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존중해 주어 특정한 비평적 시각이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되, ‘일제 강점기 문학=저항 문학’이라거나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도식적 접근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시 답 김유정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전 시대의 계급 문학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실험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런 시점에 김유정은 농촌으로 돌아가고, 비판적 시각에서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거기서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벼운 터치로 그려 내었다. 이는 도시의 삶에 대해 박태원 등이 보여줬던 성찰이나 같은 해에 연재를 시작한 심훈의 「상록수」 등과 비교할 때 역사적, 비판 의식, 민족의식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전 시기의 다소 경직된 문학을 극복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말과 우리 문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방향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김유정이 ‘건강한 농촌’을 주로 그렸다는 데서 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봄·봄」의 시대적 배경

「봄·봄」은 1935년에 발표됐다. 이때는 만주 사변(1931년) 이후 일본의 지배가 점점 더 폭력화되던 시기로, 갖은 수탈 속에서 농민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다. 김유정 역시 가난과 병고 속에 요절했다.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T-sol+ / 교사용 CD 「지귀」 지문 듣기(mp3)

5. 이 소설과 다음 옛이야기를 비교하며 읽고 서사 갈래의 특징을 더 알아보자.

설화 문학

이야기 형태로 오랫동안 전해 온 초기 문학 형태. 신성한 이야기를 담은 신화(神話), 어떤 지역이나 인물 등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전설(傳說), 흥미를 주로 한 민담(民譚)이 있다.

제작 연구

작자 미상, 「지귀(志鬼)」

- 갈래: 설화, 민담
- 성격: 전기적, 주술적, 순애적
- 제재: 선덕 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랑
- 주제: 지귀의 지극한 사랑과 화신(火神)의 내력
- 특징
- ① 시간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② 신이하고 환상적이며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 ③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인 '지귀 설화'의 효시이며, 화재 예방 풍속의 내력을 설명한 설화라는 점에서 민속학적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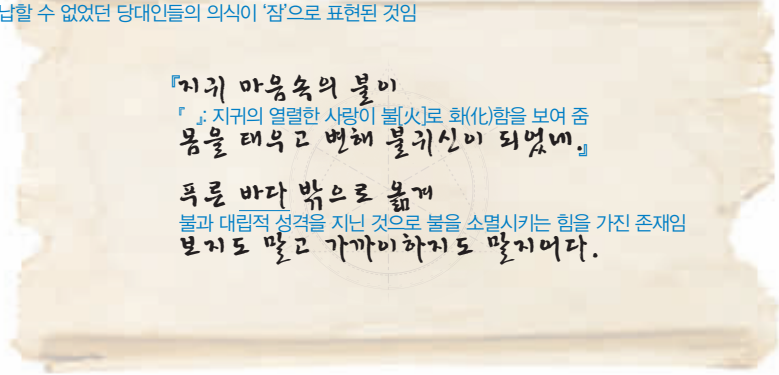
지귀는 신라 활리(活里) 역참 부근 사람이다. 선덕 여왕의 단아하고 엄중하고 미려(美麗)함에 빠져 상사병에 걸려 모습이 날로 초췌해졌다. 여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 말했다.

“짐(朕)이 내일 영묘사(靈廟寺)에 가서 향을 피울 것이다. 그 절에서 짐을 기다리도록 해라.”

그러자 지귀는 다음 날 영묘사 탑 아래에 가서 왕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홀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왕은 절에 도착해 향을 피우고는 지귀가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이에 왕은 팔찌를 빼어 지귀의 가슴에다 놓고 궁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 지귀의 사랑에 대한 연민의 표시 - 신분적 한계를 넘어 정이 오고감나 여왕의 팔찌가 자신의 가슴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여왕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다. 오래도록 몹시 근심스러워하다가, 결국 상사병이 그 몸을 불태워, 지귀가 불귀신으로 변해 버렸다.

이에 왕은 술사(術士)에게 명해 주문을 짓게 했으니, 다음과 같다.

지귀의 지순한 사랑은 인정하지만 여왕과 평민의 만남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대인들의 의식이 '잠'으로 표현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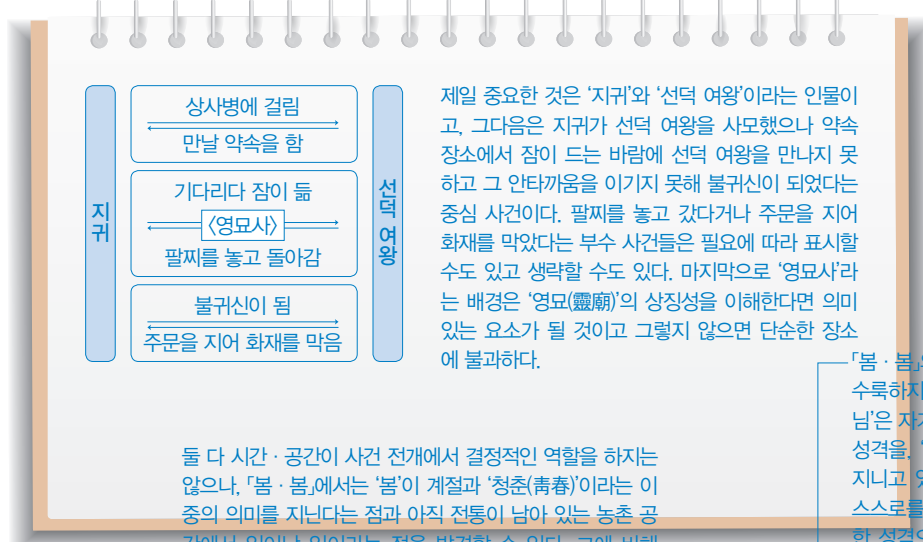


당시 풍속에 이 주문을 문과 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다고 한다. 불을 소멸시키는 힘을 가진 지귀의 한을 풀어 준 것

- 작자 미상, 「지귀(志鬼)」

- 역참(驛站)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 관리의 사행 및 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 기관.
- 미려(美麗)함 아름답고 고요.
- 짐(朕) 임금이나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 홀연(忽然)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 술사(術士) 음양(陰陽), 복서(卜筮), 점술(占術)에 정통한 사람.
- 주문(呪文) 음양이나 점술에 정통한 사람이 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는 글귀.

(1) 윗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고, 이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둘 다 시간·공간이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봄·봄」에서는 '봄'이 계절과 '청춘(靑春)'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아직 전통이 남아 있는 농촌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지귀」는 신화적인 시간공간의 의미가 강하며, 특히 '영묘'가 '선조의 영혼을 모신 사당'과 '탑'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의식하면 더 깊이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봄·봄」과 「지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서사라는 큰 갈래에 속한다는 점은 공통되나 「봄·봄」은 현대 소설이고 「지귀」는 문헌에 전하는 설화이다. 갈래는?

별어지는 사건의 특징은?

주요 갈등 요인은?

「봄·봄」은 성례를 시켜 주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나'와 장인님 사이의 갈등이 중심 갈등이 된다. 「지귀」는 여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든 지귀의 자책이 중심 갈등이다. 이들을 둘러싼 여러 하위 갈등들이 있다.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역할은?

구성 방식은?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는?

「봄·봄」은 '나'라는 일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였고 「지귀」는 3인칭의 객관적 서술자가 서술하였다.

5-(1) 이끌기

서사 갈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글의 내용들 중 하나씩 빼내어 보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서사 갈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봄·봄」의 중심인물은 셋이다. '나'는 다소 어수룩하지만 순박하고 똑심 있는 성격을, '장인님'은 자기 셈에 밝으면서도 한편으로 너그러운 성격을, '점순'은 당돌하면서도 순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귀」에서 '지귀'는 사랑에 빠져 스스로를 불사르는 열정적이면서도 집착이 강한 성격으로, '선덕 여왕'은 여왕이면서도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덕을 지닌 성격으로 묘사되었다. 「봄·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인물을 다뤘다면 「지귀」는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들을 다뤘다.

서사 갈래의 기본 요소는 두 작품에 공통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남을 알아본다.

5-(2) 이끌기

서사 갈래의 공통적 특징과 개별 작품의 차이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을 통해 서사 갈래 전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차이점을 통해 세부적인 갈래와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서사 구성의 요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봄·봄」은 시간을 뒤섞어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고, 「지귀」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봄·봄」은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 「지귀」는 요약적으로 묘사했다.

	봄·봄	지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사 갈래에 속함.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 중심 갈등을 둘러싼 여러 하위 갈등들이 있음.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인물들이 등장함. '나'라는 일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함. 일상적인 사건을 다룸.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의 배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 줌.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함. 3인칭의 객관적 서술자가 서술함. 신화적인 사건을 다룸. 순행적 구성을 취함.

「봄·봄」에서는 '성례'를 둘러싸고 '나'와 장인님, 그리고 점순이 사이에 오고 가는 가벼운(그러나 당사자들은 심각한) 갈등을 그렸다. 「지귀」는 이루어지지 못한 짝사랑의 비극을 그렸다. 「봄·봄」이 일상적인 사건이라면 「지귀」는 신화적인 특징을 지닌다.

교술은 서정, 서사, 극 갈래와 비교할 때 갈래의 속성이 뚜렷하지 않아 기본 갈래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형식이나 표현 면에서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형태나 운문 형식 등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점이 교술 갈래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불만도 있지만, 바로 이 때문에 교술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서정이나 서사, 극 갈래가 담당하지 못하는 깨달음과 감동의 영역을 교술 갈래가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수필은 '무기교의 기교'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내세우는데, 이때의 '기교'는 형식 측면만을 가리킨다. 특정 대상이나 경험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생각의 기교', 곧 발상의 전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상상력, 독자와의 교감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단원을 학습할 때는 '진솔함'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에 드러나는 양상을 살피면서 수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5-(3) 이끌기

「봄·봄」과 「지귀」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간추린 뒤 요약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서사의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인물과 사건이 서사에 있어 핵심적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봄·봄」과 「지귀」의 내용을 각각 한 문단으로 간추려 보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 간추렸는지 생각하며 서사 갈래의 특징을 말해 보자.

• 「봄·봄」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하기로 하고 4년째 머슴 아닌 머슴 노릇을 하던 '나'는 동네 친구와 점순이의 부추김을 받고 예비 장인에게 대든다. 막상 싸움이 나자 점순이가 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바람에 흠뻑 얻어맞지만 했지만, 그래도 올가을에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음을 푼다.

• 「지귀」

선덕 여왕을 사랑한 지귀가 잠이 드는 바람에 여왕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 안타까움에 휘말려 불귀신이 되었다. 여왕은 주문을 지어 백성들을 불귀신으로부터 보호했다.



→ 소설과 설화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간추리게 된다. 곧, 서사는 어떤 인물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로, 그를 통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6 이끌기

서사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식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본문에 대한 학습과 전 단계의 학습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 갈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사 갈래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기

6. 소설의 요소를 중심으로 어떤 작품이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고, 서사 갈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해 보자.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서사 갈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하였다.	☆☆☆
소설을 읽은 경험을 활용하여 의견을 말하였다.	☆☆☆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유를 서로 공감하며 나누었다.	☆☆☆

서사와 서사 문학

하나 이상의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서술한 것이 서사이다. 하지만 역사 기록이나 신문 기사를 서사 문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서사 문학은 그 내용, 형식, 표현 면에서 독창성과 재미, 감동이 있어야 한다.

(3)

수필과 교술



- ① 교술 문학의 개념
- ② 교술 문학의 형상화 방법
- ③ 교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핵심 질문 수필이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T-sol.+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수필」 지문 듣기(mp3)

이끌기

일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소중함이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 작품을 통해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이 글에서 글쓰기가 생각한 '괜찮아'라는 말의 여러 가지 뜻을 정리해 보면서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수필의 특성을 말해 보자.

제재 연구

장영희, 「괜찮아」

- 갈래: 경수필
- 성격: 교훈적, 체험적, 회상적
- 제재: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의 추억
- 주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
- 특징
 - ①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 ② 말 한마디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 벨을 울리지 못하면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쯤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참으로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난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 장영희, 「괜찮아」에서

예시 답 글쓰이는 ‘괜찮아’라는 말이 쓰이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한 ‘괜찮아’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쓰이는 ‘괜찮아’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축의 말, 희망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글쓰이의 생각, 즉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수필은 특정한 형식이나 기교 없이 일상의 의미 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윗글은 ‘삶’이라는 심각한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삶에서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독자와 대화하듯이 형상화한 문학이 교술 문학이다. 교술 문학은 그때그때 적절한 형식을 사용하여 세계관이나 가치를 표현,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작품이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하는지 살펴보고 교술 갈래의 본질을 이해해 보자.

제재 선정 의도

「이옥설」은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한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사람과 정치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술 갈래의 보편적인 주제 형상화 방법인 '체험+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어 교술 갈래의 내용적 특성에 더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이 글은 이 단원의 제재로 선정하였다.

맥락 읽기 Q&A

1. 이 글의 글쓴이가 처한 상황은?
→ 행랑채가 퇴락하여 수리함.
2.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글쓴이가 알게 된 사실은?
→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
3. 행랑채를 수리한 일에서 얻은 깨달음을 어디에 적용하였는가?
→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
4. 글쓴이의 체험이 나타나 있는 문단은?
→ 1문단과 2문단
5.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는 문단은?
→ 3문단과 4문단

제재 연구

갈래	설(說), 고전 수필
성격	교훈적, 유추적, 경험적
제재	행랑채를 수리한 일
주제	잘못을 빨리 알아 고쳐 나가는 자세의 필요성
특징	• '체험+깨달음'의 구조로 구성됨. • 유추적 발상이 적용되어 있음.

이 작품은 고려 시대에 쓰인 고전 수필이다. 체험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상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이옥설(애니메이션), 「이옥설」 지문 듣기(mp3), 갈래 정리-고전 수필(ppt), 소단원 정리(ppt)

이옥설(理屋說)

이규보

T-sol+ / 교사용 CD

작가 소개-이규보(ppt)

설(說)

한문학 갈래의 하나.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잠깐 확인

1. 이 글은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 (○, ×)
2. 이 글은 글쓴이가 허구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 ×)
3. '행랑채'와 대응하는 것은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이다. (○, ×)

- **행랑채**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
-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음.
-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들보**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ㄴ' 자 모양, 마룻대와는 'ㄱ' 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
- **패망(敗亡)** 싸움에 져서 망함.
- **정사(政事)**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낱아서 무너지고 떨어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고도 미루고 고치지 않음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함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잘못을 오래 방치하면 손해가 크고, 잘못을 빨리 고치면 쉽게 개선될 수 있음』 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 제때 고치지 않은 행랑채에 경비가 많이 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 글쓴이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음 행랑채를 수리한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몸으로 확장하여 적용함 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함을 깨달음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라의 정사로 확장하여 적용함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경계의 태도를 가짐 자신의 깨달음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적용함 있겠는가?

이규보(1168~1241) 고려 중기의 문신·문인. 『동국이상국집』을 남겼으며, 이 책에 「동명왕편」이 실려 있다. 이 밖에 「백운소설」, 「국선생전」 등을 저술했다.

내용과 구성 파악하기

T-sol +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학습 활동 활동지(hwp)

1. 이 글의 내용을 문단 단위로 정리해 보자.

첫째 문단

행랑채 세 칸을 수리하였다.

셋째 문단

사람의 몸도 잘못을 알고 오래 고치지 않으면 다시 쓰이기 어렵고 얼른 고치면 쓰일 수 있다.

둘째 문단

행랑채 세 칸 중 비가 샌 지 오래된 두 칸은 경비가 많이 들었고, 얼마 안 된 한 칸은 경비가 적게 들었다.

넷째 문단

정치도 문제를 발견하고 개혁을 늦추면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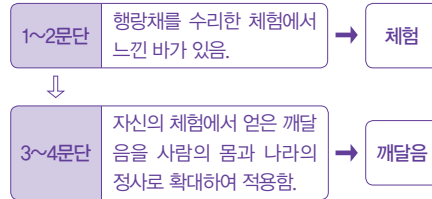
1 이끝기

「이옥설」의 내용과 구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되, 내용 파악에만 그치지 말고, 문단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형상화 방법 파악하기

2. 이 글의 주제와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참고〉 「이옥설」의 구성



(1) 이 글을 작가의 ‘체험’과 ‘깨달음’으로 나누어 보자.

체험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망가진 것을 오래 놔두면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첫째, 둘째 문단).

깨달음

집이 그러하듯이, 사람이나 나라의 정사도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셋째, 넷째 문단).

2-(1) 이끝기

교수 갈래로서 「이옥설」의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체험+깨달음’이 교수 갈래의 일반적인 구조임을 이해하고, 두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 보자.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이끝기

‘체험+깨달음’의 구조에서 주제가 분명히 제시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게 하고, 그것이 다른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글이 주제를 형상화한 방법을 말해 보자.

예시 답 일상적인 체험을 먼저 서술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었다.

2-(3) 이끝기

교수 갈래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정리한 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의 흐름이 주제 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갈래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글이 주제를 드러낸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3. 글쓴이가 다음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글을 썼다고 본다면, 글에 쓰인 소재들은 무엇을 상징할지 토의해 보자.

마지막 문단 '나라의 정사'와 관련지어 소재들의 숨은 의미를 따져 본다.

3 이끝기

교술 갈래가 주는 교훈과 현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보편적 교훈을 전달하는 교술 갈래의 주제가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어 수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된 상황을 주어진 작품의 소재들과 대응시켜 생각해 보도록 하되, 작품과 상황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작품을 읽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고려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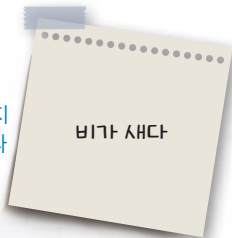
집



재목들

나라의 인재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비가 새다



경비

백성들의 부담, 고통

→ 「이옥설」의 내용과 제시된 상황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면, 무신의 난과 몽고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은 '비가 새서 집이 퇴락해 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무인 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고 보는 자세'가 된다. 하지만 「이옥설」의 관점에 따르면 비록 무인 정권이 정통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선 '집을 수리하고 재목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집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T-sol + / 교사용 CD 「플루트 연주자」 지문 듣기(mp3)

4. 이 글과 다음 현대 수필을 비교하며 읽고 교술 갈래의 특징을 더 알아보자.

플루트 연주자

피천득

배턴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 **조화를 이루는 구성원의 가치**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무음 또한 연주의 일부로 가치 있는 것임**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인의 역할도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함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外野手)**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중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비중이 적은 콘트라베이스에 대한 비유** 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Scherzo)’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째짤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 **유머러스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베이스 연주자**

「전원 교향악」 제3 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驚愕)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 **전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는 연주자의 기쁨**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자
못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
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 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



교술 문학

교술 갈래에 속하는 문학은 매우 다양하다. 현대 문학의 경우 수필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 서간문, 일기문, 기행문 등도 내용과 표현 면에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 교술 문학에 포함한다. 비평문도 교술 갈래이다.



콘트라베이스



제재 연구

피천득, 「플루트 연주자」

- 갈래: 경수필
- 성격: 교훈적, 서정적
- 제재: 플루트 연주자
- 주제: 소소한 일을 하며 세상의 하모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 특징
 - ①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며 떠오른 생각을 깔끔하고 잔잔하게 서술하였다.
 - ② 자신의 추구하는 삶에 대한 태도를 플루트 연주자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토스카
 니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無名)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조직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
 작은 역할이지만 조직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존재
 싶은 때는 가끔 있었다. ▶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와 같은 삶을 추구함

- **외야수(外野手)** 야구에서, 외야를 지키는 우익수·좌익수·중견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스케르초(scherzo)** 베토벤이 미뉴에트 대신 소나타, 교향곡 등의 제3 악장에 채운 3박자의 쾌활한 곡. 보통은 스케르초-트리오-스케르초의 겹세도막 형식이다. 이후 쇼팽과 브람스의 피아노곡, 어두운 성격의 스케르초와 서정적인 트리오가 되었다.

4-(1) 이끌기

교술 갈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글쓰이의 '개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교술 갈래로서 수필이 글쓰이의 체험에서 비롯된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글쓰이의 체험과 생각에 담겨 있는 '개성'이 수필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 됨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은 위 작품의 글쓰이가 수필에 대하여 쓴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플루트 연주자」의 개성을 말해 보자.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 피천득, 「수필」에서

예시 답 「플루트 연주자」는 모든 사람이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의 작은 구성원이 되는 행복을 이야기했다. 제목과 결말은 플루트에 초점이 놓여 있지만 오케스트라의 소소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콘트라베이스나 바순, 혹은 팀파니, 어떤 악기라도 상관없다. 그저 글쓰이가 플루트에 끌렸을 뿐이다. 이를 수필에 관한 피천득의 관점과 연결하면, 그가 수필을 '평탄하고 고요한 숲속 길',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로 묘사한 심정을 알 수 있다. 「플루트 연주자」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서 글쓰이에게 떠오른 생각을 깔끔하고 잔잔하게 쓴 글이다. 심오한 주제나 정열을 찾을 수는 없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글쓰이의 애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다.

4-(2) 이끌기

수필의 주제와 주제를 형상화한 방법을 통해 교술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본문의 「이옥설」과 비교하여 공통된 주제 형상화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수필의 주제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플루트 연주자」의 주제와, 주제를 형상화한 방법을 찾아보자.

예시 답

- 주제: 주인공이 아니어도, 작은 일을 하면서 세상의 하모니에 참여하고 싶다.
- 형상화 방법: 오케스트라에 빗대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표출하였다.

(3) 주제를 형상화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옥설」과 「플루트 연주자」의 개성을 비교해 보자.

4-(3) 이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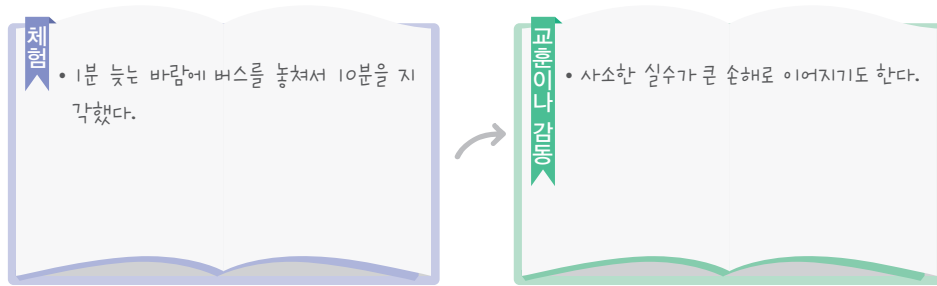
「이옥설」과 「플루트 연주자」를 비교하며 개별 수필 작품의 개성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두 작품의 표현 방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개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 두 작품 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이옥설」이 교훈의 의도를 강하게 담아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를 직접 언급한 데 비해, 「플루트 연주자」는 개인적인 감성만을 제시했을 뿐 더 이상의 강조는 없다. 똑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대상과 거리를 두고 알레고리로 주제를 강조한 「이옥설」과 일종의 비유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플루트 연주자」는 각각 교훈적 수필과 서정적 수필의 특성을 보여 준다.

교술 갈래 생산하기

5. 「이옥설」과 「플루트 연주자」의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여, 체험에서 교훈이나 감동을 이끌어 내는 글을 써 보자.

(1) 이들 작품과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체험에서 교훈이나 감동을 이끌어 내 보자.



(2) ‘체험+깨달음’의 형태로 짧은 글을 써 보자.

예시 답 우연히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를 봤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영화라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은근히 재미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주인공이 지하철을 놓치는 상황과 그 지하철을 타는 상황을 비교하며, 순간의 선택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반전을 거듭하며 보여 준다.

하필 영화를 본 다음 날 내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버스가 막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도 뛰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다음 버스가 엄청 늦게 온 것이다. 그 덕분에 지각하고, 지각한 이유 설명하다 혼나고, 혼나니까 속상해서 수업 중에 지적 받고, 수업 끝나고 탁 일어서 다 책상 고리에 걸려서 옷까지 찢어졌다. 그날은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다. 몇 걸음만 뛰어서 버스를 탔더라면 하루가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보니 내 인생도 선택의 연속인 것 같다. 길지 않은 인생이고 그다지 심각한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랬더라면…….’ 혹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돌아보는 상황이 많이 있다. 특히 지금과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더라면 당장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까?

한 가지—「슬라이딩 도어즈」에서 주인공은 지하철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상황에서 결국 만나게 된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운명과 선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리라…….

5-(1) 이끌기

학생들이 형식이나 길이에 부담을 갖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험에 바탕을 둔 수필 쓰기’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쓰기 전 활동으로 ‘교훈이나 감동을 받은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옥설」과 「플루트 연주자」의 방법을 모방해도 좋다. 내용이 충분히 나오면 글은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그 체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5-(2) 이끌기

창작을 통해 교술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체험 + 깨달음’의 기본 형식과 주제에 대한 비유적 글쓰기를 통해 교술 갈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술 갈래를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6. 쓴 글을 돌려 읽으며 서로의 글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술 갈래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해 보자.

예시 답 생략

6 이끌기

수필은 독자에게 친숙한 사실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짧고 인상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글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친구들이 쓴 글을 감상해 보게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감동을 교술 갈래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으면,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핵심 질문 이끌기

극 갈래는 문학의 기본 갈래이면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갈래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에 기반을 둔 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형태로 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몸 전체로 표현해야만 알고 느낄 수 있는 극의 가치를 그냥 앉아서 눈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서사와 극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연극, 영화, 드라마에 매우 익숙하므로 그것들의 '줄거리(여기에는 서사만 담긴다.)' 못지않게 장면 구성과 연기, 음악이나 미술 등의 부수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연 형태와 매체 등이 다른데도 배우나 연출자, 스태프들이 이들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희곡, 시나리오, 대본이 소설이나 논픽션 등과 어떻게 다른지, 나아가 희곡 읽기와 연극 보기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생각하면서 극 갈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습 열쇠

- ㉠ 극문학의 개념
- ㉡ 극문학의 형상화 방법
- ㉢ 극문학의 수용과 생산

핵심 질문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을 소설로 읽을 때와 영화로 볼 때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이끌기

소설과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극 갈래로서 시나리오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시나리오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것임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을 영화로 상영하는 것과 소설로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극의 갈래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어떤 작품은 소설이 더 좋고 어떤 작품은 영화가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갈래의 차이가 아니라 작품의 개성과 감독의 역량 때문임을 알려 주고 학생들이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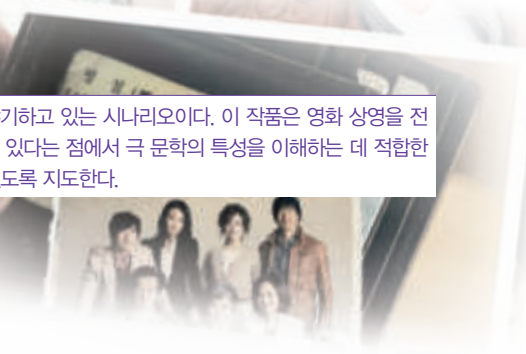
예시 답 영화는 인물, 인물의 행동, 그들로 엮이는 사건 등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작품을 접할 수 있지만, 상영되는 동안은 온전히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가며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에 비해 소설은 구체성은 덜하지만 읽는 과정이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상상하며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화를 바탕으로 소설이 나오기도 한다. 이들 작품은 줄거리는 서로 비슷하지만 형상화의 방법과 독자 또는 관객에게 주는 감동이 다르다. 서사 문학과 비슷하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되,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 주는 문학이 극 문학이다. 따라서 극 문학은 공연이나 상영을 전제로 한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 장면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극 갈래의 본질을 이해해 보자.

제재 선정 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어머니(인희)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 작품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대본으로 인물들의 관계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극 문학의 특징과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작품은 암으로 죽어 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영화의 시나리오이다. 절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며 어떤 방식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지 생각하며 감상해 보자.



T-sol + / 교사용 CD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영화(동영상), 갈래 정리-시나리오(pp), 소단원 정리(pp)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5

노희경 원작 · 민규동 각색

T-sol + / 교사용 CD

작가 소개-노희경 · 민규동(pp)

[앞부분 줄거리] 50대의 가정주부인 인희. 남편 정철은 의료 사고로 개인 병원을 정리한 뒤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다. 다 큰 자식들도 언제나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평생 온 가족의 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전원주택을 꿈꾸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 오줌소태가 심해져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르는데…….



맥락 읽기 Q&A

1. 인희의 남편이 월급 의사로 일하게 된 이유는?
→ 개인 병원을 하다가 의료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2. 인희의 시어머니가 앓고 있는 병은?
→ 중증 치매
3. 인희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간 이유는?
→ 오줌소태가 심해져서

시나리오 용어

- ① S#(Scene Number): 장면 표시 번호
- ② 내레이션(Narration):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
- ③ F. I.(Fade In):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
- ④ F. O.(Fade Out):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
- ⑤ Ins.(Insert):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기법.
- ⑥ O. L.(Over Lap): 화면이 겹쳐서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
- ⑦ C. U.(Close Up):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확대하여 찍는 기법.
- ⑧ E.(Effect): 효과음.
- ⑨ OFF: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
- ⑩ 몽타주(Montage):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

10 S# 39. 대학 병원, 로비 / 낮

정철, 출구 쪽을 보며 인희를 초조한 낯빛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철은 친구인 윤 박사를 통해 인희가 말기 암에 걸린 사실을 들었다.

인희, 들어와 정철을 찾으려 고개를 쪽 빼면, 정철, 인희 옆으로 와 툭 하고 친다.

정철 (짜증) 왜 이렇게 늦어.

인희 (짜증) 뭐가 좋아 서둘러요.

15 정철 가. (하며, 앞장서고)

평소 인희에게 다정다감하지 못한 정철의 성격이 나타남

인희 …….

▶ 검사를 받기 위해 정철의 병원을 찾은 인희

S# 40. 대학 병원, 장 박사의 진료실 / 낮

옆 진료실에서 정철과 낮은 목소리로 얘기 중인 장 박사.

<참고> 시나리오의 특징

-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 시간간격적인 제약이 적다.
- 등장하는 인물의 수에 제한이 거의 없다.
- 현재 시제를 쓴다.
- 작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장 박사 얼굴이 그게 뭐야?

정철 검사 처음부터 다시 해 줘. 윤 박사가 보낸 거 다 잊어버리구…….
아내 인희가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담은 서류

하는데, 옷을 갈아입은 인희, 간호사와 함께 커튼을 열고 나온다.

5

장 박사 (웃음, 인희에게) 제수씨, 힘들죠?
인희에게 심각한 상황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장 박사의 의도가 담겨 있음

인희 (앞으며, 웃음) 그냥 난 약이나 주면 좋겠구만.

장 박사 (농담) 이쁘니까 잘해 주려구 그러지.

정철 (일어나며) 검사실이 2층인가?

장 박사 급하긴. (차분하게) 어제 검사에서 빠진 거랑, 미흡한 거, 다시 할 거예요. 10

정철, 일어나 장 박사의 말을 신중하게 듣는 인희를 안쓰럽게 보고.

장 박사 소변, 많이 불편해요?

인희 (정철의 눈치를 보며) 그러네요.

장 박사 얼마나?

정철 (인희를 보고) …….

15

인희 오늘은 배만 뒤틀리구, 한 번도 안 나오네.

정철 (속이 상해, 의자에 놓인 코트를 들고) 빨리빨리 검사하자구. (하며, 나가고)

인희 (나가는 정철의 뒷모습에 시선) 주홍 엄마 잘 있죠?
장 박사의 아내

장 박사 깡년기 골골해요. ▶ 친구인 장 박사에게 인희의 검사를 부탁한 정철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T-sol+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정철과 인희가 각각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 추측해 보자.

예시 답 정철은 인희가 많이 아팠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알 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인희는 자신이 암에 걸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잠깐 확인

1. 인희는 자신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
2. 'S# 41'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통해 인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 **엠아라이(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한 화학 분석 장치.

S# 41. 대학 병원, 로비 / 낮

20

1. 인희,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다.
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함을 알 수 있음
2. 인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
3. 인희, 엠아라이(MRI) 검사를 받고 있다.

인희의 병이 상당히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음
정철과 장 박사, 다른 한쪽에서 계속 화면들을 보고 있다. 표정이 모두 어둡다.
▶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인희

S# 42. 대학 병원, 판독실 / 낮

장 박사, 여러 모니터를 살펴보며 정철의 안색을 살피고는.

장 박사 수술 못 해.

인희의 상태가 수술을 못할 만큼 위중함을 의미함

정철 (사납게 보며) 왜?

5 장 박사 알잖아.

정철 (자조적) 내가 뭘 알아? 명의라고 소문난 너나 알지. 나 같은 돌팔이 의사

자기 비하를 통해 아내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음

가 뭘 알아? 난 위염을 위궤양이라고, 맹장을 장염으로 판정한 적도 있어.

난 몰라. 창피한 소리지만, 널모레면 아랫것들한테 밀려, 30년 의사질도 그

만이야. 나,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나, 지금 그만둔다. 나 지금부터 의

10 사 아니야. 그니까 찬찬히 알아듣게 설명해.

장 박사 (차트 판을 끄며) 이미 늦었어.

정철 (붉게 충혈돼서는 버럭, 일어나고)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임마? 사람 목숨

놓고, 가라, 그럼 끝나, 이 자식아?

장 박사 (화가 나서) 수술, 하등 도움이 안 돼. 임파선이 퉁퉁 붓고, 여기저기 영

15 망이야. 잘못하면, 더 크게 번져. 괜히 헤집어서 병만 키운다고.

정철 수술해!

장 박사 안 돼.

정철 (눈물 가득해) 너 왜 그렇게 말이 쉬워? 남편이 의사란 작자인데 손 하나 까

닥 앓고, 저 하나만 보고 산 여자한테, 한마디로 너 끝장났어, 여편네야, 그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죽음에 무력한 상황에 대한 좌절을 보여 줌

20 령게 말하라구? 난 못 해. 배 열구 직접 보기 전엔 그 말 못 해. 진행이 예상

보다 못 할 수도 있어. 아직은 그 여자도 안 아프대.

정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심리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의사이면서도 자기 아내의 병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의 이면에는 '실력 없는 의사'라는 좌괴감, 평소 아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안함 등이 섞여 있다.

맥락 읽기 Q&A

1. 장 박사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인희의 병 상태는?

→수술을 하지 못할 만큼 위중하다.

2. 정철의 대사에서 아내의 병을 인지하지도, 고쳐 주지도 못하는 무력감이 담겨 있는 구절은?

→돌팔이 의사

S# 40



S# 41



S# 42



〈참고〉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

- 신(scene): 장면. 영화의 최소 단위
- 시퀀스(sequence): 몇 개의 장면이 모여 이루어진 일련의 화면
- 샷(shot): 컷(cut)이라고도 함. 카메라의 회전을 중단하지 않고 촬영한 일련의 필름(화면)으로, 샷이 모여 신을 이룸.

장 박사 아퍼, 참는 것뿐이야. 분명 아퍼. 그리고 수술하면 인희 씨가 더 힘들어.

정철, 안 되겠다 싶은지, 차트 판의 불을 켜고 여기저기 짚으며.

정철 (중양 가리키며) 그래, 나두 의사야. 이게, 이렇게 큰 게 아래를 누르고 있어. 소변볼 때마다 죽을 맛일 테구.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할 거야. 자각은 죽는다는 통보니까, 곧 죽겠지. (울지 않으려 이를 앙다물고) 죽을 때 죽더라도,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이걸 때 낼 수 있어. 숨통이나 틱우자구! 단 1주일만이라도 더…… 그것만이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정철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남 라두…… 해 주자구! ▶ 수술을 받아도 소용 없다는 인희의 상태에 절망하는 정철

S# 43.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앞 / 낮

↓ 'S# 43'에서 인희의 지난 삶이 여 떠났는지를 드러내는 내용을 찾아 보자.

예시 답 인희의 대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인희는 부모 없이 동생을 거느리고 살다가 결혼해서는 일에 빠진 남편을 수발하며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돈을 아끼며 사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인희, 씩씩대며 걸어가고 있고, 정철 성큼성큼 쫓아와 자기 쪽으로 돌려세우며.

정철 (짜증 난 얼굴) 집은 나중에 저두 돼. 아픈 사람이 어딜 가? 아픈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남편 정철의 방식이 나타남

인희 (뿌리치며) 어머니 그 집서 겨울나기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

정철 (반대쪽 팔을 이끌며) 집에 가.

인희 (뿌리치며) 진즉에 좀 걱정하지. 젊어서 애 날 때두 옆에 없던 사람이. 병원 정철이 인희에게 무심하게 대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음 가요. 일두 안 하구 월급 받을 거야? (정류장 쪽으로 가고)

정철 (한숨 쉬고 따라가, 다시 팔을 잡고, 택시를 세우려고 한다.)

인희 (뿌리치고) 버스 놔두고 무슨 택시? 돈이 써어 나? 죽을병도 아닌데……. 인희는 아직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내가 걱정되면, 근덕이한테나 한번 가 보든가. 인희의 남동생

정철 (화난, 보면)

인희 (야속하다.) 내가 엄마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정철 (보기만 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할 말이 없음

인희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뚫어지게 보기는.

버스 오고, 인희, 사람들과 같이 버스에 올라타려다,

인희 오늘은 술 먹지 마. (혼잣말) 어젯밤처럼 오기만 해 봐라. (타고)

정철, 떠나는 인희를 보고, 하늘 보며, 한숨을 '휴!' 하고 쉬고. ▶ 자신의 병을 모른 채 정철에게 일상적 잔소리를 늘어놓는 인희

잠깐 확인

1. 'S#'를 통해 장소가 병원 안에서 병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
2. 지문으로 제시된 인희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인희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S# 44. 전원주택 앞 / 밤

인희, 김 소장의 차로 집 앞에 멈춰 선다.

가로등이 켜 있고, 아직 완공이 다 안 된 상태.

인희, 내리고선 집을 설레는 마음으로 둘러보며 뿌듯해한다.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인희의 꿈이었음

▶ 자신의 꿈인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는 인희

- 5 [중략 부분 줄거리] 검사 결과 인희는 자궁암 말기로 판명되고, 수술도 실패한다. 예고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편 자신이 죽은 후의 식구들을 걱정하는 인희.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이다. 자식들에게는 끝까지 병을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 막내까지 알게 된다.

S# 142. 인희의 집, 할머니 방 / 밤

[중략]

- 10 정수, 가족들 번갈아 보면서 멍해지다가, 펄쩍 뛰고 묻는다. 정철은 창 쪽으로 시선 외면하고 있다.

정수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아파? 엄마가 왜 죽어? (돌아보고) 아빠?
 (대답 없자, 연수 보고) 누나! (연수, 외면한다.) 야! 말해! 뭐야, 내가 모르는 게 뭐야!

- 15 연수 …….

정수 넌 언제부터 안 거야! 응? 언제부터 안 거냐구! 나만……. 모른 거야?

인희 정수야.

정수 (발악하며) 그런 거야?

연수 (허리 다잡으며) 이리지 마.

- 20 정수 (연수를 밀치지만 안 되는) 놈!

(정철에게) 아빠!

정철 (외면하는)

정수 아빠 의사잖아. 근데 왜 엄마가 아파!

연수 이리지 마, 정수야.

- 25 정수 놈! 놓으라고!

연수 (안고 울며)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정수에게 자신의 병을 숨긴 인희의 심리를 설명해 보자.

예시 답 정수는 막내로서 늘 어려 보이고, 어릴 때 사고를 당해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데다, 다른 신경 쓰임 없고 공부를 해야 하는 삼수생이다. 인희는 엄마로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병을 숨긴 것이다.

<참고> '인희'의 부재가 지닌 의미

곧 죽을 인희는 자신보다 남겨 두고 가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우선한다.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 자신을 대신해 그러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맡아야 할 가족들을 걱정하는 인희의 모습은 이 모든 책임을 엄마의 고유한, 당위적인 임무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조실부모하고 키운 동생의 노름빚 걱정,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딸에 대한 걱정, 남편의 노후에 대한 걱정, 딸의 결혼에 대한 걱정, 온갖 대소사에 대한 걱정 등 세상을 떠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뿐이다. 심지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자신이 사랑해 준 시간이 비교적 짧았기에 사랑을 적게 줄 수밖에 없었던 막내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나타내는 장면은 어머니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 김강원, 「노희경의 TV 드라마에 나타난 모성 담론」(2006)

정수 (주저앉아 울며) 왜, 왜 울 엄마가 죽
어야 된대? 왜! (인희에게 매달리며)
난 못 보내!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응?

연수와 정철, 정수를 인희에게서 떼어 내
면, 인희, 아까부터 끄끙 목울음을 울다가 기어이
참았던 슬픔이 폭발쳐 넘치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 줌
터진다.

인희 (정수 안고 우는) 아이고, 우리 정수…….

인희, 못 참겠는지, 방을 뛰쳐나가 벽에 주저앉으며 속 얘기를 터뜨린다.

인희 나도…… 나도, 살고 싶어. 죽으면 천국, 지옥 있다는데, 지옥 같까 봐 무
10
섭구.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는지 너무 무서워. 죽을 때도 많이 아플
까? 정수 대학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 아니, 연수 결혼하는 것만 보
고, 아니, 정수 애 낳는 것만 보고, 내 새끼도 이렇게 이쁜데 손주들은 얼마
나 이쁠까. 나 별 받나 봐. 너무 힘들 땐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라나. 생각했
었는데, 우리 정수 처음 사고 났을 때, 보청기 끼고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15
내 통장 전부 다 내놓겠다고,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고. 그래서 나 별 받나 봐…….

저마다 선 자리에서, 저마다 작게, 크게 우는 가족. 암전.
어머니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긴 가족

▶ 시어머니의 목을 조른 인희와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정수

↓ 인희가 실제로 소망하는 삶의 모
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 자식들이 대학 가고 결
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평범한 삶
이면 만족하겠다고, 비록 사고가
났지만 아들이 보청기를 끼고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겠
다고 소망했다.

잠깐 확인

1. 인물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인
희의 죽음에 대한 저마다의 슬
픔을 표현하고 있다. (○, ×)
2. 이 작품은 인희가 병에 걸려 죽
는다는 설정을 통해 권선징악
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 ×)

S# 144. 인희의 집, 화장실 / 아침

할머니, 변기 위에 물을 뒤집어쓴 채로 앉아 있고, 20
인희, 할머니 발에 비누칠을 해 씻기고 있다.

인희 (약간 투명스레) 오늘뿐이야. 나
없으면 이제 똥 아무 데나 누고 그러면

안 돼. (샤워기로 물을 행귀 주며 달려들) 안 그러실 거지? 오늘은 내가 놀라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

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돼?

인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음

할머니 (가만있고)

인희 (계속 행귀 주고)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씻겨 주는 인희

5 S# 145. 인희의 집, 거실 / 아침

연수 (불안한 표정)엄마?

화장실의 인희, 여전히 대답 없고, 연수, 심란하게 정철을 보고,

소파에 앉은 정철, 창밖 보며 담배 피우고, 정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웅얼웅얼 냐두

리를 쏘는다. 『』 행동들 통해 등장인물의 안타까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

10 정수 아빠, 대학 발표 때까지만이라도, 엄마 살게 해 줄 수 없어요?

정철 (보고)

정수 (고개 떨구고, 울먹이며) 저 대학 가면 알바 할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다닐 자신 있어요.

정철 (정수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15 정수 아빠, 한 번만 기뻐 주세요. 이런겐 못 보내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서..... 안 돼요. 이런겐 안 돼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안 돼요.

평소 어머니에게 잘해 주지 못한 죄책감이 드러남

정철 (눈물 참고 정수의 손을 꼭 잡아 주고)

▶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정수

S# 146. 인희의 집, 화장실 / 아침

인희, 할머니에게 새 속옷, 내복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행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 줌

20 인희 (맘 아픈 걸 참고) 좋아?

할머니

인희 (쫓고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인희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인희 맘을 알 것 같다.)

인희 (눈물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그 유명한 남대문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하므로

억척스럽던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짐작할 수 있음

〈참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이 드라마는 주요 등장인물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첫째, 이 시대 어머니의 자화상이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조금은 느슨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노년 초기의 어머니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조금은 억울할 법도 한 인생인데 그 억울한 마음을 다 접고 가까이 모두 두고 가는 우리 삶의 근원인 어머니를 깊이 있게 그려, 시대를 불변하는 한국의 어머니상을 보여 주었다.

둘째, 현재 우리 시대의 아버지상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다. 정철은 평생을 의술을 펼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권고사직을 당한다. 아내 에겐 모자란 남편, 자식들에게 부족 한 아빠가 되어 버린 이 시대 아버지들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조명하고, 그래도 그가 한 가정의 기둥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셋째, 고부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 줬다. 노망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대끼며 살면서 얻은 끈끈한 정을 통해 자꾸만 멀어지는 고부간의 문제를 다시 조명했다.

넷째, 자식으로서의 젊은이를 그리고 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 박준희, 『TV 드라마 작가 노희경 연구』(2004)

예시 답 인희는 시어머니에게 반 말을 하고 있다. 치매 때문에 할머니가 아이같이 구는 이유도 있고, 구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져서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구박하고 구박받던 옛 날부터 보살피고 보살핌받는 오늘 까지 외롭고 힘든 인생의 동반자로 아웅다웅하며 살아 왔다.

▶ 인희가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를 통해 인희와 할머니(시어머니)의 사이가 어떠한지 짐작해 보자.



여장부……. 시아버님, 다 늙어, 겨우 북에 둔 정인 잇고, 어머니한테 정 붙이나 했더니, 중풍으로 누워 고생만 시키다 훌쩍 떠나시고, 평생 외로움에, 우리 서로 잘 통했는데…….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자신의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임 친정엄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 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당신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중략]

5

▶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인희

S# 147. 인희의 집, 정수 방 / 낮

인희, 정수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정수는 인희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니터에는 사이버 대학 창이 떠 있다. 느릿느릿 마우스를 눌러, 입학 수속을 밟고 있다.

10

인희 쥐라서 그러나 잘 안 잡히네.
정수 같이 잡아 줄까?

인희 됐어. 혼자 해 볼게.

15

정수 엄마, 실은 나 의대 말고, 미대 가고 싶어.

미대에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할

인희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렴…….

인희, 자꾸만 머리 모양이며 얼굴이며 신경을 쓴다.

인희 머리 괜찮니? 잠 설치서 좀 부었는데…….

정수 이뻐.

20

인희 주름은 좀 빼 주라.

어느새, 수속이 완료된 화면.

정수 (일어나 화면 앞으로 와서) 어, 됐어? 올 엄마도 이제 신입생?

인희 (쉽성한) 응……. 근데, 입학식이 3월이네.

입학식 때까지 살아 있을지 알 수 없음

정수 …….

▶ 사이버 대학 입학 수속을 하는 인희와 인희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정수

25

예시 답 엄마의 병을 알기 전에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의대를 지망했지만 엄마의 병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미대에 진학하고자 한다.

↓ '엄마의 병을 알기 전과 후에 정수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인희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동안 전원주택이 완성되고, 정철과 연수는 인희를 위해 집을 예쁘게 단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보내는 새집에서의 첫날.

S# 163.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아침-낮-밤

1. 인희, 평상복 차림으로 더욱 아픈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정철이 상 차리는 모습을 보
 - 고 있다. 밥 하다 말고, 우스꽝스러운 엉덩이춤을 추며 인희를 배꼽 잡게 하는 정철.
 2. 잠시 후, 정철, 인희에게 죽을 떠먹여 주고, 인희, 힘겹게 받아먹고.
 3. 무릎 베고 누운 인희에게 앨범을 보여 주며 수다 떠는 정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
 - 상적인 행복에 즐거워하는 인희의 모습과 아픔에 기운 없고 힘겨워하는
 - 인희의 모습을 교차시켜 보여 주면서 독재관객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함.
 4. 정원에서 버섯을 주워 들고 신기하다는 듯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5. 인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위태위태 집 둘레를 도는 정철.
 6. 강가를 거닐다 춥다고 어지러워하는 인희. 서둘러 인희를 챙기는 정철.
 7. 오한에 떨며 잠든 인희 너머로, 울타리와 나무들에 전구를 장식하는 정철.
- ▶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희와 정철

S# 166. 전원주택, 거실 / 밤

정철, 땀을 뻘뻘 흘리며 비디오 케이블 잭과 단자에 이리저리 꽂아 본다.
평소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아 서툰 정철의 모습이 나타남

- 15 인희 (보다 못해) 나중에 정수 오면 시켜요.
- 정철 다 됐어.

드디어 화면이 나온다.

<참고> 전원주택의 의미

인희가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전원주택은 인희의 죽음을 앞두고 남편과 딸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데, 이것은 온전한 가정으로의 완성됨을 의미한다.

▶ 아무 대화 없이 두 사람의 행동을 몽타주 기법으로 보여 줘서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소설과 다른 영화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독재(관객)는 이미 줄거리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만으로 사건과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다시 누리지 못할 일상적인 행복들과 아픈 인희의 모습을 교차하여 보여 줌으로써 예고된 죽음의 비극성을 아이러니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잠깐 확인

1. 따라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을 활용해 행복한 일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
2.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인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희의 죽음에 담긴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



↓ 소리가 안 나오는 비디오가 상징하는 비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정철은 의료 사고로 의사로서의 권위를 잃은 지 오래이며, 연수는 유부남과 이루지 못할 사랑에 빠져 있고, 정수는 청력을 많이 잃은 상태다. 할머니 역시 치매로 정신이 성치 않다. 유일하게 '온전한 인간'이었던 인희까지 불치병에 걸림으로써 집안의 불구성이 완성된다.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비디오는 이런 불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이 작품의 주안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쭌하게 인희를 보고 열은 미소를 짓는 정철.
 하지만 화면만 나오고 오디오는 나오지 않는다.
 이마에 땀을 닦는 정철. 인희 눈치를 보며 리모컨으로 세팅을 바꿔 보지만 여전히 화면만.

인희 **괜찮아. 자막 있잖아.** (들으라는 듯) **당신 바빠서 나 혼자 몇 번을 봤게.** 5
외로웠던 인희의 삶을 짐작할 수 있음

대꾸 없이 나가는 정철, 기타를 들고 온다.

인희 (소녀같은 웃음) 정철 씨 멋지네.

연주할 폼을 잡는 정철. 어색하다가 제법 폼이 잡힌다.
 마침 화면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립싱크를 맞춘다.

인희 얼마 만이야. 당신 노래……. 10

정철 이제 매일 불러 줄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불안한 음색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자리 잡는 정철의 노래.

하지만 힘이 드는지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리는 인희. 노래는 계속 흐르고.

▶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희와 정철

S# 167. 전원주택, 침실 / 밤

인희, 침대에 수줍게 누워 있고, 정철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15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15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워할 가족을 위한 소원임. 자신보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인희의 성격을 알 수 있음
 정철 언젠 답답해서 싫다구 화장해 달라며? 20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루더라. 남한강에 뿌렸는데, 하두 오래되니까 여
 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구,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
 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구 애들은 그러지 말라구.

정철 …….

인희 이 집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 뿔가루만 한 줌 뿌려 놔 줘. 25

맥락 읽기 Q&A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한 가지씩 결핍이나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는 소재는?
 → 소리가 안 나오는 비디오
- 인희가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말에 담긴 속 뜻은?
 → 가족들이 자신을 그리워할 장소를 마련해 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

정철 …….

인희 당신,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보면)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5 정철 (고개 저으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은 거는 같애?

정철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10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맘, 보며) ……또?

정철 (고개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15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
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사소한 일상의 장면을 나열하여, 인희가 항상 보고 싶은 것임을 나타냄

20 인희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리고)

인희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애뜻하고 안타까운 사랑이 행동을 통해 드러남

정철 너, 정말…… 고마웠다…….

▶ 이별을 준비하며 서로를 향한 애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인희와 정철

25 S# 168. 인희의 집 + 전원주택 / 새벽

연수, 정수, 선애는 잠들어 있고. 할머니는 여전히 숯바꼭질 중.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나타냄

할머니 (흥얼거리며)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맥락 읽기 Q&A

1. 정철은 언제 인희가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하였는가?

→ 언제 어느 때건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하였다.

2. 정철이 인희에게 갖는 마음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대사는?

→ “너, 정말…… 고마웠다…….”

이 장면을 환상적으로 처리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자.

예시 답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요인인 '인희의 죽음'은 정철 작품에서는 직접 묘사되지 않는다. 다만 할머니의 환상과 정철의 목소리로만 암시되는데, 이를 통해 인희의 삶 전체를 한꺼번에 떠올리면서 독자에게 더 큰 여운과 감동을 주게 된다. 나아가, 독자가 인희의 죽음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죽음을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 죽음과 화해하는 주제까지 한 가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인희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다가, 문득 인희 방을 열면, 그곳은 전원주택의 온실이다. 놀란 할머니 앞으로 집에서 가져온 꽃 무더기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인희의 뒷모습이 보인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할머니, 서서히 다가서더니, 문득, 상처 난 데에 입김을 불어 주는 듯, 호오오오 해 준다. 순간, 백만 송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온실 너머 새벽안개 속으로 피어오른다.

정철 (OFF) 여보…….

▶ 인희의 죽음을 암시하는 할머니의 행동



S# 169. 전원주택, 침실 / 아침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10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 있다.

인희 …….

정철 (아내의 죽음을 느낀다. 보지 않고) 여보…….

인희 …….

정철 인희야……. 15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참지 못하고 부서져라 껴안는 정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똑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

너무나도 깊이 잠든 인희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다. 페이드아웃.

▶ 인희의 죽음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정철

노희경(1966~) 드라마 작가. 「세리와 수지」(1995)로 데뷔했으며, 「거짓말」, 「그들이 사는 세상」, 「디어 마이 프렌드」 등의 작품이 있다.

민규동(1970~) 영화감독.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로 데뷔했으며,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열세 살 수아」, 「오감도」 등의 작품이 있다.

제재 연구

갈래	시나리오	배경	현대의 우리 사회
제재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인희의 삶	주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본 가족의 진정한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냄. •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으로 어머니(인희)를 떠나 보내는 가족의 슬픔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음. •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인희)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모습을 그림. 		

T-sol + / 교사용 CD 활동 풀이(ppt), 학습 활동 활동지(hwp)

인물의 관계와 성격 이해하기

1. 이 시나리오 속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1) '인희'를 중심으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 보자.

인희: 50대 초반의 가정주부.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천천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

연수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인다.

정철
월급 의사. 일에 치여 살다 뒤늦게 아내의 병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할머니
치매에 걸렸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는 인희를 안쓰러워한다.

정수
삼수생. 막내로 어리광을 부리며 살다가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다.

♥ 인물 간의 관계와 각 인물의 성격을 찾아본다.

(2) 다른 사람에게 '인희'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참고한다.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다.

남편은
의사로 잘나가다가 의료 사고를 내고는 월급 의사로 일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불만이다.

시어머니는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더니 늘그막에는 치매까지 걸려서 그녀를 힘들게 한다.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다.

자식들은
다 컸지만 항상 위태위태하다. 그래도 다 이쁘고 귀하다.

자신은 부모 없이 어렵게 산 데다 동생은 속을 썩이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한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평생을 애면글면 살았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무섭고 억울하고, 남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1-(2) 이끌기

핵심적인 등장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1-(1)의 활동에서 파악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핵심 인물인 '인희'가 느낀 감정과 '인희'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극 갈래의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2. 이 시나리오의 각 장면을 보며 극 갈래의 특징을 살펴보자.

2-(1) 이끌기

극 갈래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소설과 극에서 각각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서술자와 배우의 차이를 통해 서사 갈래와는 다른 극 갈래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같은 장면을 묘사한 소설과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극 갈래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을 말해 보자.

[소설]

묻는 엄마도, 대답하는 아버지도 점차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보지 않은 채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 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뺐어냈다.

“술 먹을 때, 술 깼 때, 잠자리 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부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엄마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도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할 만큼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었다.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기어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시나리오]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예시 답 소설은 객관적인 묘사(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 눈물이 흐른다 등)와 내면의 해석(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 있던 말,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었다 등)을 교차하면서 대사를 문자로 제시하였다. 그에 비해 시나리오는 대사만을 집중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배우의 연기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관객은 영화를 통해 배우의 표정과 연기, 대사, 장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



(2) 이 시나리오의 다음 부분들이 사건을 묘사하는 방법과 각각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가 S# 43.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앞 / 낮

정철 (반대쪽 팔을 이끌며) 집에 가.

인희 (뿌리치며) 진즉에 좀 걱정하지. 젊어서 애 낳 때두 옆에 없던 사람이. 병원 가
요. 일두 안 하구 월급 받을 거야? (정류장 쪽으로 가고)

정철 (한숨 쉬고 따라가, 다시 팔을 잡고, 택시를 세우려고 한다.)

인희 (뿌리치고) 버스 놔두고 무슨 택시? 돈이 써어 나? 죽을병도 아닌데……. 내가
걱정되면, 근덕이한테나 한번 가 보든가.

나 S# 163. 전원주택, 몽타주 / 저녁-아침-낮-밤

3. 무릎 베고 누운 인희에게 앨범을 보여 주며 수다 떠는 정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4. 정원에서 버섯을 주워 들고 신기하다는 듯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5. 인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위태위태 집 돌레를 도는 정철.

6. 강가를 거닐다 춤다고 어지러워하는 인희. 서둘러 인희를 챙기는 정철.

7. 오만에 떨며 잠든 인희 너머로, 울타리와 나무들에 전구를 장식하는 정철.

다 S# 168. 인희의 집+전원주택 / 새벽

인희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다가, 문득 인희 방을 열면, 그곳은 전원주택의 온실이다.

놀란 할머니 앞으로 집에서 가져온 꽃 무더기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인희의 뒷모습이
보인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할머니, 서서히 다가서더니, 문득, 상처 난 데에 입김을 불어 주는 듯, 호오오오 해 준다.

순간, 백만 송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온실 너머 새벽안개 속으로 피어오른다.

말하기와 보여 주기

- 말하기(telling): 대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서술하는 방식. **예** 그는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팠다.
- 보여 주기(showing): 대상과 거리를 두고 서술하면서 그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방식. **예** 그의 배에서 쉴 새 없이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2-(2) 이끌기

극 갈래의 형상화 방식과 그러한 방식의 효과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각 장면에 사용된 사건 제시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되, 이 부분이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방법	효과
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관객이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한다.
나	대사 없이 행동만을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보여 준다.	죽음을 앞둔 인희와 그런 인희를 지켜보는 정철의 내면을 현실과 대비하여 더 강하게 공감하도록 한다.
다	장면과 행동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묘사한다.	죽음 장면을 환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희의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정리하고 열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장면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3. 이 시나리오와 다음 희곡을 비교하며 읽고 극 갈래의 특징을 더 알아보자.

「웰컴 투 동막골」

장진 감독의 창작 극본.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동막골'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 편의 동화처럼 그린 작품이다. 동막골은 지친 사람들이 잠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순수함과 평화로움을 간직한 이상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제재 연구

장진, 「웰컴 투 동막골」

- 갈래: 희곡
 - 성격: 환상적, 낭만적, 상징적
 - 배경: 시간 - 6.25 전쟁 중 / 공간 - 강원도 함백산 동막골
 - 주제: 이념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초월한 인간애
 - 특징
- ① 개성적인 인물의 등장과 희극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강원도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이고 순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작가가 극 중에 직접 등장하여 극 중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등장인물

- 현철, 상상: 국군
- 치성, 영희, 택기: 인민군
- 그 외: 부락민

[앞부분 줄거리]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함백산의 숨겨진 마을 동막골에 추락한 미군기의 조종사, 낙오한 인민군 병사, 전쟁에 회의를 느껴 탈영한 국군 병사가 우연히 모여든다. 서로 뜻하지 않게 마주친 국군과 인민군은 부락민들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

작가 이렇게 그들은 만났습니다. 총을 겨누었고 수류탄을 손에 쥐었고 으박지르고 작가가 장면 속에 직접 등장하여 소설의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함 비명 지르고.

치성 입 다물고 손 올리라우!

영희 국방군도 있구만. 뭐 주워 먹을라고 여기 있네. 싸그리 다 죽기 전에 총구 깔고 뒷집 지라우.

현철 할 거 남았으면 해 보라. 발 떼고 싶으면 떼고, 총질하고 싶으면 손가락이라도 까딱해 보라. 다 죽자 하고 총질해 대 보면 결국엔 남는 놈 있을 테니까 그놈이 깃발 꽂고 이겼다 치자고.

택기 말뽀새 좋구만, 그 입으로 우리 입 막아 보라우. 수류탄 세 발 앞마당에 떨어질 테니 그때도 그렇게 설레발을 깔 수 있나 보자우.

작가 어느 한쪽도 지지 않았습시다. 누구 하나 손가락을 까딱했다간 모두가 죽을 수 작가가 장면 속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밖에 없는 판이었죠. 현대…… 현대 말이죠. 이렇게 만난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 서로 평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찍은 사진 진을 (액자를 들며) 찍을 수 있었을까요? 영화의 사건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함 이건 하나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50년 동란의 가을…… 태백산맥 아래 자락 함백산 동막골에 알 수 없는 신비함이 내려앉은 거죠. 동막골…… 이곳은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신비의 마을이었습니다.

[중략]

현철 어르신, 이 부락은 죄다 빨갱이 신봉자들만 모여 있소? 정신 차리세요. 이리다가 이 작자들이 부락민들 죄다 사살하고 갈 겁니다.

촌장 젊은이, 글썄, 난 잘 모르겠구만. 그래, 그런 말 많이 들었지. 난리 통에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 하더구만. 찢기고 말려 죽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빨갱이가 뭐고 누가 우리 편인지…… 막말로 이 총에서 총알이 어떻게 나가는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 난리가 났다 해도…… 이 근방에선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지. 순평하게 지내고 있다고. 밑에서 씹질하는 거 영문도 모른 채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편 가르고 적 만들어 죽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내가 촌장이오, 내 생각이 부락의 생각이오, 이념을 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촌장과 마을의 방침이 나타나 있음 이건 손들어 결정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평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드러냄
마님 그건 촌장의 말이 옳소. 이 부락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린 거라면…… 잠시 요기나 하시고들…… 그냥 지나쳐 가지시오.

인정 넘치는 마을의 인심을 알 수 있음
치성 우린 북쪽으로 갈 거외다. 우리가 운이 좋아 살아서 귀대를 하면 어느 격전지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구만. 그때 쏘라우, 젊은 소위.

택기 빨리 쏘아야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쏜다.

현철 넌 몇 살이냐? 도대체?

택기 열일곱이다. 왜?

현철 내가 너보다 열 살이 많다. 아무리 적이지만 말 좀 가려라.

치성 그럼, 나랑 따동갑이구만.

현철 …….

상상 어…… 그럼 11년 돼지띠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네.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상황이 희극적인 상황으로 전환되어 감

치성 자식 일찍 봤구만. 삼촌이라 부르라.

치성의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남

현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성 서택기!

택기 네, 군관 동지.

〈참고〉 영화로 제작된 「웰컴 투 동막골」

장진의 동명 연극을 영화한 것으로 2005년 '필름잇수다'에서 제작하였다. 각본은 장진, 박광현, 김중이, 감독은 박광현이 맡았다. 정재영, 신하균, 임하룡, 류덕환 등 연극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배우들이 영화에도 이어서 출연하였다. 상영 시간은 133분이다. 동막골에 머물게 된 국군, 인민군, 연합군 일행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전쟁 드라마 영화이다.

제작사 필름잇수다 측은 연극과 영화의 상관성에 대해 “애초 「웰컴 투 동막골」은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나리오였다. 그것이 각색을 통해 연극 공연이 된 것이고, 다시 영화화를 위한 각색 작업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였다. 또 “강원도 평창에 ‘동막골’ 오픈 세트를 건축할 만큼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라고 전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영화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연극에서는 화자로 설정된 ‘작가’가 등장하여 아버지가 남긴 과거의 사진 한 장과 부분적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직조해 나가지만, 영화에서는 ‘작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꿈과 같았던 과거 어느 사건의 상상적 재현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동치성’은 ‘리수화’로, ‘이연’은 ‘여말’로 바뀌었다.

3-(1) 이끌기

개별 작품에 나타난 극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극 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희곡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본다.

3-(2) 이끌기

극 갈래의 주요 요소인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그림 속에 제시된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인물들의 심리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도록 한다.

3-(3) 이끌기

극 갈래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극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주제 형상화 역시 그것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대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치성 이 소위 양반한테 형이라 부르라.

택기 네? 아니…….

치성 그렇게 부르라. 동무가 그러면…… 이 소위 양반 나한테 큰 형님이라 부를 것
희극적인 대사를 통해 갈등의 긴장감을 덜어 내는 효과가 있음
 같지 않네?

현철 꿈 깨시지…….

택기 형!

현철 조용히 안 해!

촌장 자…… 자…… 보아하니 다들 내 손아래 같은데…… 그만들 칭얼대고…….

부인, 일단…… 남은 참 있으면 놓아 주시고 부인도 들어가 쉬시오, 이제…….

- 장진 「웰컴 투 동막골」에서

(1) 「웰컴 투 동막골」에서 '작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 독자를 작품 속 세계로 안내하고, 감상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것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양 말함으로써 작품 속 세계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 준다.

(2) 다음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말해 보자.

영희
 "싸그리다 죽기 전에 총구 말고 뒷짐 지라우."
 패잔병으로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장악하여 살아 남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현철
 "정신 차리세요. 이리다가 이 작자들이 부락민들 죄다 사살하고 갈 겁니다."
 적군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부락민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상상
 "우리 아부지하고 동갑이네."
 적군이기는 하지만 군복만 벗으면 다 같은 사람이고 한 핏줄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택기
 "형!"
 큰 적대감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촌장
 "보아하니 다들 내 손아래 같은데…… 그만들 칭얼대고……."
 양쪽 다 근본적으로 악한 인물들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중재하려고 한다.

(3) 「웰컴 투 동막골」의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대사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말해 보자.

예시 답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빨강이가 뭐고 누가 우리 편인지…… [중략] 여기서 편 가르고 적 만들어 죽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 편을 갈라 싸우기보다 순박한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평가가 중요하다.

(4) 작가가 말한 ‘액자’ 속 사진에 어떤 장면이 담겼을지 추측해 보자.

예시 답 맥락으로 볼 때 국군과 인민군이 평화롭게 함께 찍은 장면이 사진에 담겼을 것 같다.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웰컴 투 동막골」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웰컴 투 동막골
갈등의 성격	인물의 운명과 관련한 개인적 갈등	이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갈등을 제시하는 방법	인물의 대사와 상황을 통해 제시한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을 통해 제시한다.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	가족 간의 사랑,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동막골 사람들의 순박함, 편은 갈렸지만 다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
갈등 극복 과정에서 공간이 지니는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살: 인희의 삶과 꿈이 응축된 공간 • 전원주택: 인희와 남은 가족의 희망이 걸 집된 곳 	동막골: 인간의 분열이나 싸움이 침범하지 않은 순수의 공간

극 갈래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4.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며 극 갈래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추가해 보자.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연극) 공연이 목적임.	(영화) 제작이 목적임.	(드라마) 제작이 목적임.
인물의 수 제한 있음.	(인물 수의 제한이 적음.)	
시·공간적 제약 많음.	(시·공간적 제약이 적음.)	
공연 시 (연출과 연기가 중요함.)	제작 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음.	
공연 시 관객과 (직접) 교류함.	상영이나 방영 시 관객이나 시청자와 (간접적으로) 교류함.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함.		
주로 (객관적, 3인칭) 시점을 씀.		
(극 갈래에 속함.)		

3-(4) 이괄기

극 갈래의 주제 형상화 방식으로서 소품의 역할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극의 주제 형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지만, 그 밖에도 음향이나 무대 장치, 소품 등도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5) 이괄기

극 갈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갈등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다. 갈등이 극을 형상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작품에서 그것의 형상화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이괄기

대표적인 극 갈래의 종류인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을 비교하는 활동이다.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글 갈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품을 각색하여 공연하기

T-sol+ / 교사용 CD 단원 통합 활동(ppt), 통합 활동 활동지(hwp)

다음을 읽고, 작품의 갈래와 구조에 관해 토의해 보자.

T-sol+ / 교사용 CD 「눈물은 왜 짠가」 지문 듣기(mp3)

눈물은 왜 짠가

함민복

지난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 시간도 있고 하나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령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 뒤라.”

설령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뿔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령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넋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 부딪쳤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치며 내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가난한 처지에 주인아저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끄러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행동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령탕에 어머니의 배려에 대해 통명스럽게 반응한 것에 대한 자책, 가난한 한 슬픔, 죄송함, 사랑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 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 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 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가난하게 살아온 어머니와 '나'의 삶의 역정을 형상화한 맛. 어머니에게서 느낀 사랑의 깊이를 형상화한 맛



듣기 · 말하기

시, 소설, 수필, 희곡의 형상화 방법을 떠올리며 읽어 본다.

제재 연구

함민복, 「눈물은 왜 짠가」

- 갈래: 산문시
- 제재: 어머니
- 주제: 가난 속에서 느끼는 모자간의 뜨거운 인간애
- 특징
- ① 짧은 콩트 형식의 서사적이고 산문적인 시이다.
- ② 가난을 어찌 못하는 젊은이들의 섬세한 내면세계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다.
- ③ 어머니와 아들, 설령탕집 주인 사이에 발생하는 교감이 이야기 형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눈물은 왜 짠가」라는 물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활동 의도

이 대단원에서는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 감상을 통해 각 갈래에서 어떻게 작품을 형상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눈물은 왜 짠가」는 1996년에 출간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산문시이다. 하지만 산문적인 필체로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식사 장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산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갈래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갈래 사이의 경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갈래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지도 방안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단계 위 작품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을 찾아보자.

인물	세 인물이 드러나지 않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주제가 드러난다.
상황 또는 사건	가난으로 어머니와 헤어지는 상황. 설렁탕 국물이라도 더 먹이려는 어머니의 행동
정서	안쓰러움, 안타까움, 슬픔 등

2단계 위 작품이 어떤 갈래에 속하는지 토의해 보자.

(1) 인터넷에서 위 작품을 어떤 갈래로 소개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예시 답 「눈물은 왜 짠가」를 검색하면 (산문)시로 소개하는 곳도 있고 산문으로 소개하는 곳도 있다. 실제로 이 글은 시집(「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비평, 1996)에 실려 있기도 하고 산문집(「눈물은 왜 짠가, 책이있는풍경, 2014)에 실려 있기도 하다.

(2) 위 작품의 갈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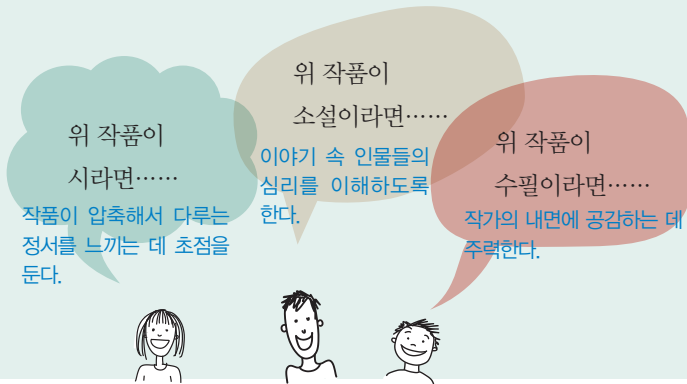
	동의하는 정도	까닭
윗글은 일상의 경험을 기록한 글로서, 문학으로 보기 어렵다.	♡♡♡♡♡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쓴 글이다.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작품은 시이다.	♡♡♡♡♡	시인의 정서를 압축해서 보여 주고, 낭송하기에 적절하다.
위 작품은 짧은 소설이다.	♡♡♡♡♡	짧기는 하지만 인물의 심리와 행동, 곧 이야기가 담겨 있다.
위 작품은 수필이다.	♡♡♡♡♡	일상적인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으로 표현했다.

📌 인터넷에서 서평, 감상문, 소개 글, 작품의 출전 등을 찾아본다.

<2단계> 지도 방안

「눈물은 왜 짠가」의 갈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먼저 이 작품이 어떤 갈래로 출판되고 소개되었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후, 작품의 갈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학의 갈래에 따른 특성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어느 갈래로 보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갈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감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도한다.

(3) 위 작품의 갈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 감상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앞서 「눈물은 왜 짝가」의 갈래에 대해 토의하면서 시, 소설, 수필 갈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눈물은 왜 짝가」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사건, 인물의 심리와 대사를 중심으로 대본을 꾸며 공연해 봄으로써 극 갈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교술, 극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이해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작품의 내용을 극으로 공연해 보자.

<1단계> 지도 방안

작품의 갈래를 변용해 보는 활동이다. 앞에서 배운 극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환기하고, 이 작품 속 상황만으로는 완결된 대본을 꾸미기 어려우므로 인물을 더 넣거나, 앞뒤 사건을 꾸미거나, 대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1단계 위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을 꾸며 보자.

눈물은 왜 짝가

원작: 함민복

각색: 1학년 ___반 ___모듬

예시 답

- 대: 2000년대의 어느 여름날
- 곳: 어느 위성 도시 재래시장 안의 설렁탕집
- 등장인물:
- 무대:

나: 배우 지망생. 대도시의 극단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편의점 알바 등으로 생활비를 번다.

어머니: 남편 없이 드난살이로 아들을 키웠으나, 이제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주인아저씨: 팔팔하지만 한편으로 남 생각도 해 주는 성격. 시장의 터줏대감이다.

주인집 딸: 대학생. 명랑하고 집안 사정도 이해하지만, 가끔 철없는 짓을 한다. 연극을 좋아해서 극장에서 일하는 '나'를 본 적이 있다.

버스 기사: 설렁탕집 단골. 아내와 헤어지고 늙은 어머니와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며 매사에 툭툭거리다.

극단에서 잡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다리가 아파서 평생 하던 식당일을 그만두게 된 어머니. 집세마저 밀리게 되자 결국 어머니는 고향 이모님 댁에 가서 지내기로 하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짬을 내 시장 설렁탕집에 간다. 식당에는 마침 극장에서 안면을 익힌 그 집 딸도 와 있고, 옆 테이블에는 어머니가 곧 타고 갈 버스의 기사가 평소처럼 툭툭거리며 국밥을 말아 먹고 있다. 늘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팔아 준 적이 없는 식당에 모자가 함께 들어서자 눈이 샅샅하게 찢어지며 째려보는 딸.

주인아저씨 어서 오세요
 어머니 (쭈뼛거리며) 아, 안녕하세요.
 주인아저씨 두 분이신가?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앉을게요. 에어컨 바람 맞으면 시러서…….
 주인아저씨 그러시든가. 뭐 드릴까요?
 나 설렁탕 두 그릇이요.
 어머니 아니, 한 그릇만 주세요.
 [이하 생략]





2단계 작품 공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보자.

예시 답 생략



<2단계> 지도 방안

이 활동은 매체 변용을 통해 극 갈래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포스터나 공연 팸플릿, 초대장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에 해당 작품의 핵심적 요소를 잘 담아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3단계 역할을 나누어 대본을 공연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 보자.

예시 답 생략

제작진	배우
● 연출	1
● 무대	2
● 음향	3
● 조명	
● 의상	
● 분장	
● 카메라	
● 진행 · 기록	

<3단계> 지도 방안

극을 실제로 공연해 보는 활동이다. 자신이 만든 대본을 바탕으로 실제 공연을 해 봄으로써 극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공연하고 동영상을 만들 때에는 모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4단계 동영상에 대하여 한 줄 평을 써 보자.

한 줄 평

예시 답 · 원작보다 더 선명해진 캐릭터, 원작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
 · 시에도 이야기가 있고 삶에도 시가 있다. 함민복의 유명한 작품을 마치 우리 삶처럼 보여 준다.
 · 「눈물은 왜 짠가」를 이 시대 청년 문제로 구체화한 연극. 젊은이들에게 '노오력' 강요하는 시대는 과연 정당한가!

<4단계> 지도 방안

공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공연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감상이나 칭찬에 그치지 않고 극 갈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하기

다시 보기 다음 질문에 답하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자.

동짓돌 기나긴 밤을



서정 갈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재를 형상화한 방법을 중심으로 「동짓돌 기나긴 밤을」을 감상해 보았다. 나아가, 현대 시도 함께 읽으면서 서정 갈래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서정 갈래의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감상하면서 상상력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

1 2 3 4 5

봄·봄



서사 갈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물의 성격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봄·봄」을 감상해 보았다. 나아가, 옛이야기도 함께 읽으면서 서사 갈래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서사 갈래의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감상하면서 상상력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

1 2 3 4 5

핵심 질문 돌아보기

문학을 갈래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 단원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 작품의 구조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문학은 크게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로 나누는데 각각의 갈래에 따라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받는 감동이 다르고 이에 따라 당연히 감상 방법도 달라진다. 이처럼 문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각 갈래의 특징과 형상화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울러 문학의 갈래를 알고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개별 문학 작품은 물론,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문학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옥설



교술 갈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 체험에서 주제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옥설」을 감상해 보았다. 나아가, 현대 수필도 함께 읽으면서 교술 갈래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 교술 갈래의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감상하면서 상상력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극 갈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 전개와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는 방법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감상해 보았다. 나아가, 희곡도 함께 읽으면서 극 갈래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 극 갈래의 문학 작품을 읽고 실제 공연물을 찾아 감상하면서 상상력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가?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에서는 서정, 서사, 교술, 극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으며 감상하고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 표현상의 여러 요소들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재미와 감동을 자아낸다는 점도 배웠다. 문학의 갈래와 형상화 방법, 작품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면 이해와 감상은 물론이고 창작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여러 갈래의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며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고, 그를 통해 정서를 순화하며 삶을 가꾸도록 하자.